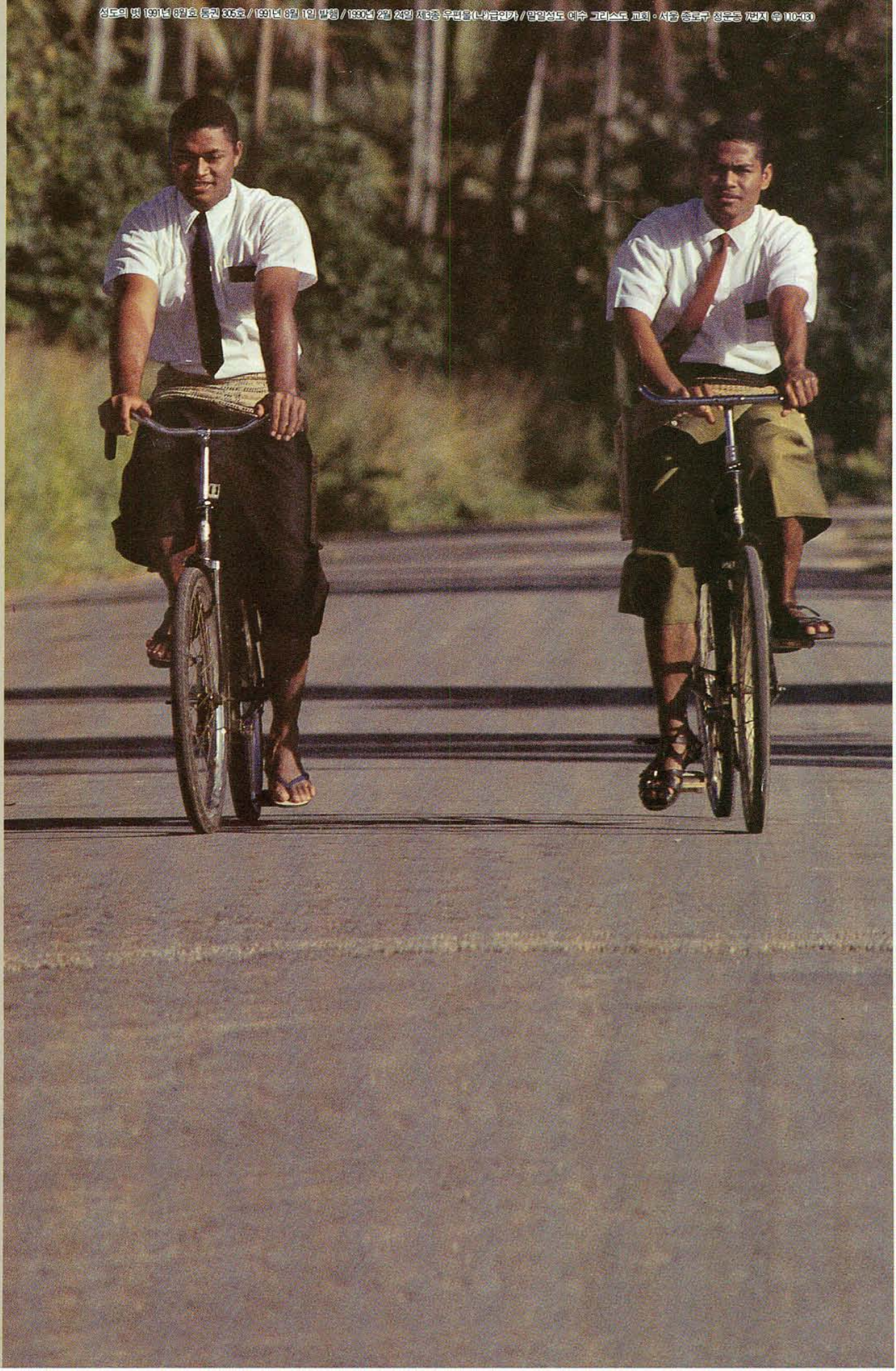


1991

# 성도의 빛 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 표지 설명 —

이 선교사들은 일백년전 통가 섬에서 시작된 선교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선교 사업 일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통가 성도들과 그들의 신앙에 관한 기사를 실는다.

36쪽 참조

표지사진 : 윌리엄 플로이드 홀드먼

### — 어린이란 표지 설명 —

열 살인 조수아 데니스는 어느 버려진 광산에서 5일간 갇혀 있다가 구출된 후 다시 스케이트보드 타기 등,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조수아 데니스 : 신앙의 보물”, 62쪽 참조

## 일 반

대관장단 메시지 :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2

“저는 하나님의 참된 신권을 찾았습니다” 앤 램런 루이스 ..... 8

역사의 도시 :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말빈 케이 가드너 ..... 17

통가 섬의 성도들 : 신앙의 유산 에릭 비 섬웨이 ..... 36

아직도 젊다 스티븐 케이 크리스찬슨 ..... 46

## 청 소 년 란

리사의 친구들 리차드 엠 롬니 ..... 12

축복사의 축복에 따라 인생의 향로를 설계함

리차드 피 린지 장로 ..... 18

“머리나 깎으시지요!” 제리 맥킨 ..... 32

## 정 기 특 별 기 사

질 의 응 답 : 독신 여성의 인생의 목적 ..... 22

방문 교육 메시지 : 사랑-비이기적인 봉사 ..... 25

가족 지침서 : 스트레스와 실의에 대처함 ..... 26

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 십일조의 축복

멀린 알 리버트 회장 ..... 65

교회 및 지역 소식 ..... 68

## 어 린 이 란

물문경 이야기 : 아빈아다리와 노아 왕 ..... 50

심심풀이 : 강을 끼고 있는 수도들 ..... 55

함께 나누는 시간 : 진지한 기도 로럴 룰핑 ..... 56

지상의 가족 킴벨리 에이 리틀 ..... 57

우리들의 친구

조수아 데니스 : 신앙의 보물 새논 더블류 오슬러 ..... 62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에즈라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런, 리차드 지 스킵  
고문: 렉스 디 피네가, 진 알 쿡, 존 피 그로버그,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제305권, 제28권, 제8호  
등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91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홍 무 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1년 제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 / 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1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1988 320  
Printed in Korea 8/91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이дах호에서 선교 사업을 하러 딸이 떠나가자 저는 무척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위안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읽고 위안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훌륭한 잡지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늘 저와 함께 있습니다. 저는 리아호나가 있기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에드나 리퀴다노  
라 시에네가 와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영감을 받아 만들어지는 잡지

리아호나(스페인어판)는 참으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지는 잡지입니다. 저는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를 우리 가정에 전해 주는 이 중요한 잡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리아호나에 실리는 말씀과 기사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원리 뿐만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매달 우리 가정에 빠짐없이 리아호나가 도착되도록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카르멘 마리아 토렌티노이  
쿠라사오 지부  
베네주엘라 카라카스 선교부

귀중한 그림과 사진

개인적으로나 가족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물론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데에도 필요한 자료들이 실려 있는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매달 읽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와드 상호부조회의 영적인 공과 교사인데, 이 잡지에 나오는 사레나 이야기나 경전의 인용문을 종종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사진과 그림입니다. 이러한 것은 가르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또한 저 이외의 다른 회원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그림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편집을 맡으신 분께 연례 색인의 그림에 관한 보충 자료 색인을 주제별로 포함시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전면에 때로는 두 쪽에 걸쳐 대형 그림을 포함시켜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잡지의 어딘가에서 보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지나간 리아호나를 한 권씩 뒤적이면서 오랜 시간을 보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색인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리아호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셀사 산체스 데 리겔메  
고도이 크루즈 센트럴 와드  
아르헨티나, 멘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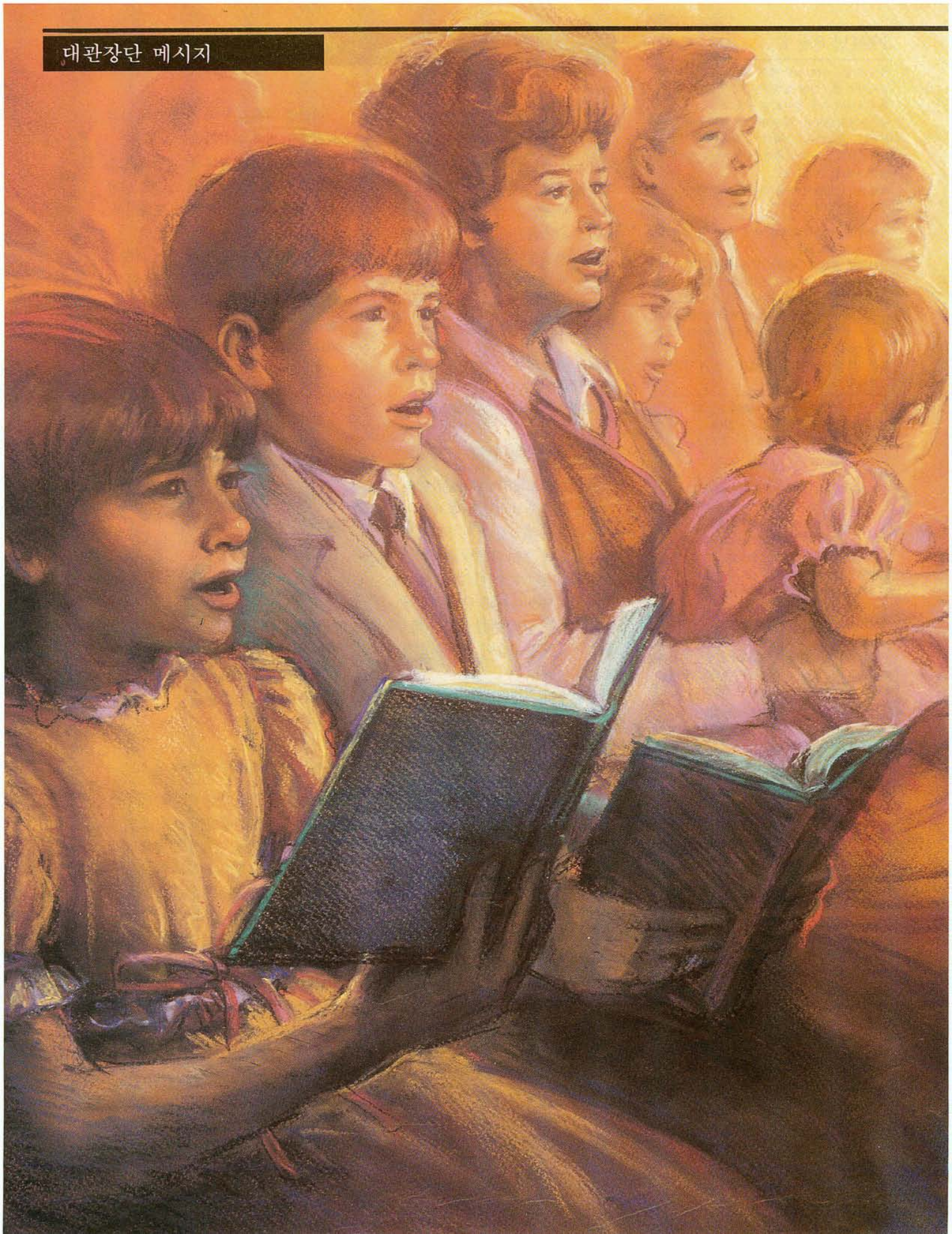
편집 노트: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자매님의 서신이 접수되었을 때는 연말 색인이 이미 준비된 뒤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자매님의 제언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됨

우리 가족은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키워 왔으며 물몬경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 모두가 참뜻을 가지고 물몬경을 읽으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슬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후안 이그나시오 폴리도 에스코바  
빌라헤르모사 멕시코 스테이크  
멕시코, 레포르마 치아파스



#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테이크라는 용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속으로 땅 속에 단단히 박혀 있는 여러 개의 말뚝에 연결된 밧줄에 의해서 떠받쳐진 거대한 천막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들은 말일의 시온을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천막에 비유하였습니다. 이 천막은 수많은 말뚝에 연결된 밧줄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뚝(스테인)들은 여러 지역에 조직을 갖추고 온 세상에 퍼져 있으며, 지금 이 여러 시온의 스테이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테이크의 목적을 확실히 이해하시도록 경전에서 몇 구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하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시온의 주민이나 조직된 시온의 어떤 스테이크에 사는 주민에게도 하나의 율법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68 : 25~26)

스테인의 역할은 소속 회원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온전하게 되도록 하며, 의의 표준이 되고 악에 대항하는 방어진이 되며 앞으로 있을 환란의 때에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테이크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는 “시온... 안에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도록 도와주고 구원을 위한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조직됩니다.

스테이크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조직되며, 온전에 이르기 위한 발전 과정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스테이크가 조직되어야 회원들의 유익을 위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시행되도록 승인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란 청년과 성인 형제들을 위한 신권 정원회 및 교회 보조 조직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가족 및 각 개인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고 그것을 강화시키며, 지상의 시험 기간 동안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계시를 통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온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고 그 경계가 넓어져야 하며 그 스테이크는 강하게 되어야 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은 마땅히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 : 14)

이 계시를 통하여 주님은 스테이크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 즉 온 세상이 바라볼 아름다운 표상이 될 것을 밝히셨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라는 구절은 물론 스스로를 성도라 칭하는 모든 회원들이 도달해야 할 내적인 고결성을 뜻합니다.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교리와 성약 97 : 21)입니다.

회원들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성결함에 대한 표준과 행위로 나타내 보일 때, 시온의 스테이크는 강화되고 시온의 경계가 넓혀질 것입니다.

“시온이여... 네 힘을 입을지어다.”(이사야 52 : 1)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서나 예언자들이 늘 사용해 온 표현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러 모을 자들을

가리켰나니, 저들은 또 다시 시온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룩할 신권의 권능을 지닐 자니라. 힘을 입는다 함은 신권의 권위를 지닌다 함이니, 계통을 따라 당연히 시온이 가질 권능이요”(교리와 성약 113 : 8)

이 밖에도 주님은 또다른 계시를 통하여 스테이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진실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여러 국민의 기가 되게 하라.”

“또 시온의 땅과 시온의 스테이크에 집합하게 하여 폭풍우가 내리치고 분노가 뒤섞임이 없이 그대로 온 땅 위에 쏟아져 내려올 때에 방어진이 되며 분노를 피하는 대피소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 : 5~6)

이 계시에서는 우리에게 빛을 발하여 그 빛이 여러 국민들을 위한 기, 즉 표준이 되게 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표준이란 사람들이 정확성이나 완전함을 결정하기 위해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성결함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 주님은 시온의 스테이크가 “폭풍우가 내리치고 분노가 뒤섞임 없이 그대로 온 땅 위에 쏟아져 내려올 때에 방어진이 되며 분노를 피하는 대피소가 되게 하라.”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스테이크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적과 또한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방어진이며, 이 방어진은 간증을 강화시키고 가족의 결속과 개인의 의로움을 촉진시키는 신권 계통을 통해 제공되는 지시 사항입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의 서문으로 주신 계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그 시각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때가 임박하였도다.”(교리와 성약 1 : 35)

이 계시가 주어진 지 16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사람들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사탄은 계속 맹렬한 기세로 “자기의 영토”인 이 지상에서 권세를 펼쳐 보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회원 선교 사업은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열쇠가 됩니다.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이처럼 강력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인도자로 삼고 신권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르는 사람만이 사탄의 악한 영향력에 빠지는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서문으로 주신 계시를 통해 또한 친히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교리와 성약 1:36)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종들과 스테이크 및 와드의 관리 직원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예언자 니파이는 성도들이 스테이크 단위로 온 세상에 퍼져 살게 될 날을 미리 보았으며, 성도들이 그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파멸의 폭풍우에 의해 위협받을 때에 주님께서 보호의 팔을 펼치시게 될 날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니파이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권세가 어린양의 교회의 성도들과 지면에 흩어진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 위에 임하심을 보았나니 저들이 크신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하였느니라.”(니파이일서 14:14)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말일에 위협과 재난과 박해가 있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의로움으로 인하여 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은 주의 권세로 의를 지키시나니.”(니파이일서 22:17)라는 주님의 약속은 분명 성취될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 볼 때, 최소한 다음 네 가지 목적이 스테이크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각 스테이크는 특정 지역내의 성도들에게 소단위 교회의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세 명의 대제사가 관리하고 열 두 명의 고등 평의원이 이들을 지원하며, 그 경계내에 살고 있는 회원들을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의식을 집행하며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완전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의로움의 모범과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3. 스테이크는 방어진이 되어야 합니다. 스테이크 회원들이 지역 신권 역원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로 결합하고 각자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성약을 지켜 나갈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빠지거나 악에 물들거나 큰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것입니다.

성전은 스테이크가 있는 곳에만 세워지며,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 및 축복은 성도가 승영에 이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스테이크마다 성전을 하나씩 세울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세계 여러 지역에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참으로 기적과 같이 놀라운 발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축복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박 1 번씩은 = 30일

4. 스테이크는 땅 위에 쏟아져 내리는 폭풍우를 피하는 피난처입니다.(교리와 성약 115:6 참조)

이와 같은 스테이크의 목적을 상기하면서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부과된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회원 선교 사업은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열쇠가 되며 또한 회원 개개인이 성장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아들과 손자들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소년들은 각자 선교사 기금을 위한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가정은 피난처가 되어야 하며, 사랑과 화합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 각자가 가정의 지시 아래 기도하고 복음을 공부하며 가정의 밤 모임을 가져야

각 스테이크는 특정 지역내의 성도들에게 소단위 교회의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세 명의 대제사가 관리하고 열 두 명의 고등 평의원이 이들을 지원합니다.

합니다.

5. 성전 의식 및 축복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주님의 계명을 지켜 정직하고 성실하며 순결한 생활을 하고 또한 주님의 신권 지도자를 지지함을 뜻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은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되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6.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성전 의식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조상의 성명을 성전으로 보내기 위하여 필요한 탐구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상과 영원히 결봉되지 않고서는 결코 승영에 이를 수 없습니다.

7. 가족의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1936년 이후로 교회는 회원들에게 일년치의 양식과 의복 및 가능한 지역에서는 연료까지 비축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축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계시의 말씀대로 실직했을 때나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또는 심지어 재난을 당할 때에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8. 신권 소유자는 잘 계획된 가정 복음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원회 회원과 그들의 가족을 보살피고 도와야 합니다. 각자가 지명받은 모든 회원 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는 회원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9. 교회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주어진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여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88 : 80 참조)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10. 성인 회원들은 모두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며 금식 헌금을 후하게 내야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이며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충실하고 이 위대한 사업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도록 도와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물문경에 나오는 위대한 예언자인 모로나이의 간절한 권고를 전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 시온의 딸들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그 경계를 넓혀 다시는 흠어지지 않도록 하고, 오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너희들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게 하라.”(모로나이서 10 : 31) \*

교회의 스테이크에 관한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단의 말씀에서 인용

### 가정복음교사를 위한 제안

1. 주님은 다음 네 가지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스테이크를 조직하셨다.
  - ...스테이크 내에 살고 있는 회원들을 결속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 ...의로움의 모범을 보이도록.
  - ...회원들을 위한 방어진이 되도록.
  - ...땅 위에 쏟아져 내리는 폭풍우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게 하기 위하여.
2. 스테이크는 회원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지명한다.
  - ...복음의 “빛”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들과 손자들이 선교 사업을 하도록 준비시킨다.
  - ...가정이 피난처가 되며, 사랑과 화합의 장소가 되도록 한다.
  - ...자신과 죽은 조상을 위해 성전 의식 및 축복을 받도록 노력한다.
  - ...자립한다.
  - ...교회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한다.
  -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며 금식 헌금을 후하게 낸다.





# “저는 하나님의 참된

앤 램런 루이스

## 환

후시에는 신권의 회복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전에 속해 있던 교회의 신권 직분에서 해임된 후 처음으로 다시 신권을 소유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후시에는 말한다.

18년간을 천주교 사제로 지냈던 후시에는 “영적인 공허감”을 느끼고는 성직을 포기했다. 그후, 그는 회복된 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신권을 찾게 되었다.

환 후시에는 1922년 8월 23일 중국의 외딴 농촌 마을인 타에에서 태어났으며, 열 살이 될 때까지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 뒤 후시에는 한 사립 학교에서 4년간 공부한 후, 천주교 학교에 입학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고,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다. “저는 천주교 선교사들의 훌륭한 모범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후시에는 겪은 과정은 긴 세월이 걸렸으며 험난했다. 먼저 4년 동안 후안에 있는 카톨릭 신학교에 다녔으며, 중국의 수도 북경에 있는 천주교 대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했다. 1년 후에 공산주의자들이 그 도시를 점령하자 상해로 탈출하여 그곳에 있는 오로라 예수회 대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상해마저도 점령하자 후시에는 홍콩에 있는 카톨릭 신학교로 옮겨 갔으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그곳의 신학교가 마카오로 이전하였다. 마카오에 있는 동안 후시에는 천주교 사제로서 서품되었다.

사제로서 서품되고 나서 후시에는 이태리 로마로 가서 4년 동안 이태리어와 라틴어와 법학을 공부했으며, 그 다음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어와 그리스어, 히브리어, 영어, 스페인어 및 독일어를 공부하여 성경의 원문과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후시에는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했다.

1967년, 후시에는에게 마침내 모국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실현될 기회가 주어졌다. 대만에 있는 후 켄 천주교 대학교 총장인 유 핑 추기경이 그에게 그 대학교에서 철학과 프랑스어를 맡아 가르쳐 달라고 제의했다. 그 직책을 수행하면서 후시에는 점점 성숙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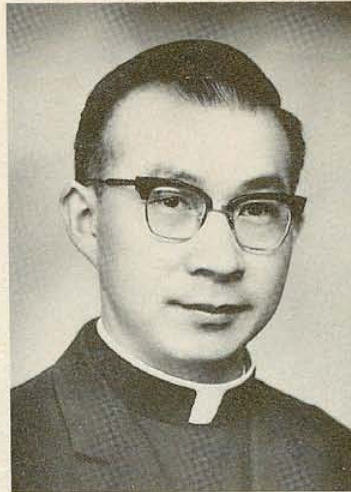
후시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18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게 부과된 사제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며 보냈습니다. 매우 바쁘게 생활을 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유럽에서 공부할 기회도 있었고, 선생도 해 보았고, 학생과 교수, 군목, 신학교 교장 등 매우 다채로운 삶을 겪었지만 마음에는 영적인 공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는 어떤 책에 대한 금서 조항과 같은 후시에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규칙과

판례가 있었다. 그러나 후시에는 가능하면 모든 책을 읽고 싶었다. 서품된 사제로서의 그를 괴롭힌 또 한 가지 문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창세기 2:18)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다.

“이 특별한 성경 구절이 제게 생생한 현실로 다가온 것은 제가 몹시 아픈 데도 가까이에서 돌보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였습니다. 저는 심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삶을 나눌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영원히 홀로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느낌들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서 마침내 1973년 그는 사제로서 맺은 서약을 풀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후 켄 대학교를 사직한 뒤 곧 이어 대만에 있는 쉐 치 국립 대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일년 후,



# 신권을 찾았습니다”

후시에는 같은 대학교 조교로 근무하던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선살이었다.

“그러나 성직을 떠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성직에 몸담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몸 바쳐 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사제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결혼이 허락되는 다른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 볼까 하고도 생각해 보았지만, 천주교에서 형성된 믿음으로 인해 그 같은 변화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후시에게 혼자 집에 있는데 두 명의 청년들이 문을 두드렸다. “그 젊은이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문기에 시간도 없을 뿐더러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관심도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구이며 이곳 대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발코니로 나가 살펴보니 그 청년들은 이집 저집 문을 두드리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아파트에서 나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그들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는 먼저 ‘젊은이들은 선교사입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저는 그 선교사들의 종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눈 첫번째 대화를 통해서 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선교사들이 방문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아내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마태복음 7:15 참조)는 주님의 훈계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시 방문하였을 때, 후시에는 그들을

집안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무례를 범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들어오도록 했다. 그리고 저녁 내내 후시에는 선교사들에게 참된 종교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설명하였다. 후시에는 자신이 천주교 사제였다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선교사들은 그가 기독교에 관한 지식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 중 한 선교사였던 도널드 비 세나티엠포 장로는

당시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마치 그분이 선생님이고 우리는 학생이라는 착각을 하였다. 우리는 그분이 매우 지성적이며 신앙심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교사들이 다시 방문해도 좋겠느냐고 묻자 후시에는 좋다고 대답을 했다. 그 다음부터 매주 방문이 이루어졌다.

“그들을 떠나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후시에는 회상한다. “저는 참된 교회라면, 예언자가 있고 계속해서 계시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그 교회에는 왜 십자가와 못박히신

예수님 상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그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선생님의 친구분이나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면 그분들의 죽은 모습을 찍은 사진을 꺼내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시겠습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현명한 대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후시에는 물론경과 교리와 성약을 읽기 시작했으며, 특히 교리와 성약은 주님께서 말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좋아했다. 그가 읽어볼 만한 다른 책을 부탁하자 선교사들은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가 쓴 기이한 업적을 한 권 갖다 주었다.

세나티엠포 장로는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후시에 형제가 신권을 받아 그 신권에 합당한



환 후시에, 그의 아내인 쇼우이 로우, 열 여섯 살 된 아들 아웨이. 천주교 사제를 지낸 적이 있던 후시에 형제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대만 타이페이 성전장단에서 봉사했다. 후시에 자매는 워드 보조 조직 역원, 성전 봉사자 및 신학 연구원 교사로 봉사했다. 아웨이는 집사일 당시 2천 명 이상의 죽은 사람들을 위한 침례를 베풀었다.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해 주었다. 후시에 형제는 하나님의 참된 신권을 지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정도의 영적인 수준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였다.”

후시에에는 그가 읽은 것을 아내에게 설명해 주었으며, 그러면 아내도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후시에 형제 부부는 함께 공부하였으며, 이해력을 넓혀 주실 것을 간구했다. 마침내 후시에의 아내는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함께 기도했으며, 함께 침례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후시에 부부는 1977년 12월에 침례받았다.

이들 두 부부의 생활 가운데 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부터, 후시에 형제 부부는 계속해서 강한 간증을 키워 갔으며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간증을 나누기를 즐겨 했다.

“우리 부부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늘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복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와 재능을 활용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후시에 형제는 말한다.

후시에 형제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몇 번 있었다. 그는 기독교를 믿는 대학 교수들이 모이는 국제 대회에서 일곱 번이나 강연을 하였다. “우리 교회가 현대 기독교 사회에서 새롭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러한 학자들에게 간증을 전할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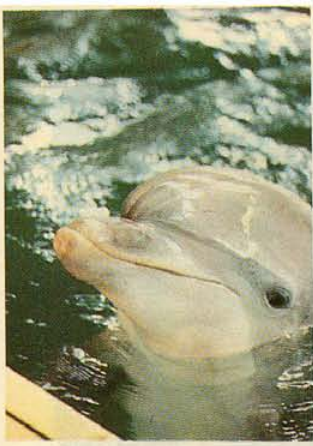
무차 워드 회원인 후시에 형제는 현재 타이페이 서 스테이크에서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중국어판 몰몬경을 재번역하는 일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라고 후시에 형제는 말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정을 증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과 승영에 이르는 것입니다.” \*





PHOTOGRAPHY BY M. KAWASAKI



# 리사의 친구들

리사 로토는 돌고래와 함께 생활하면서 동물과의 사랑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서로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리차드 엠 롬니

**핀** 랜드 템페데에 사는 리사 로토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사의 친구들을 만나보려면 약속을 해야 하며, 리사의 친구들이 사는 장소에 박테리아를 묻혀 들이지 않도록 종이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리사는 그 친구들을 타일러서 진정시키고 여러분을 신뢰하도록 납득시킵니다.

그런 다음 리사는 수영장 옆에 서서 머리 위로 두 손을 올리며 호각을 불니다. 그러면 리사의 친구들은 매끄러운 회색 전기 메기와 같이 물 속을 뚫고 나와 여러분에게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다음 미사일과 같이 위로 방향을 돌려 여러분에게 물을 튀기면서 공중으로 몸을 치솟아 올릴 것입니다.

이제 리사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물론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는 신기한 동물이에요. 매일 돌고래들과 함께 생활하며 같이 일하고 또한 훈련시키다 보면 한 마리 한 마리를 개별적으로 알게 돼요.”라고 리사는 말합니다. 리사는 돌고래들에게 각각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돌고래들이 각각 응답합니다.

“이 돌고래의 이름은 내씨입니다. 내씨는 사진 찍히기를 좋아합니다.”라고 리사가 말하자 그 돌고래는 기꺼이 포우즈를 취했습니다. 리사는 20살 때 돌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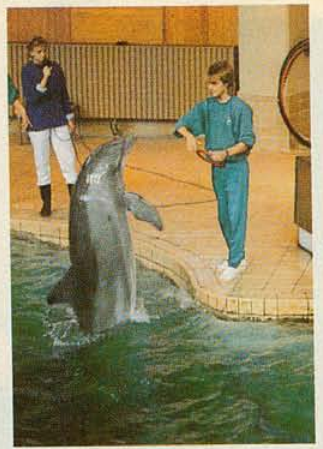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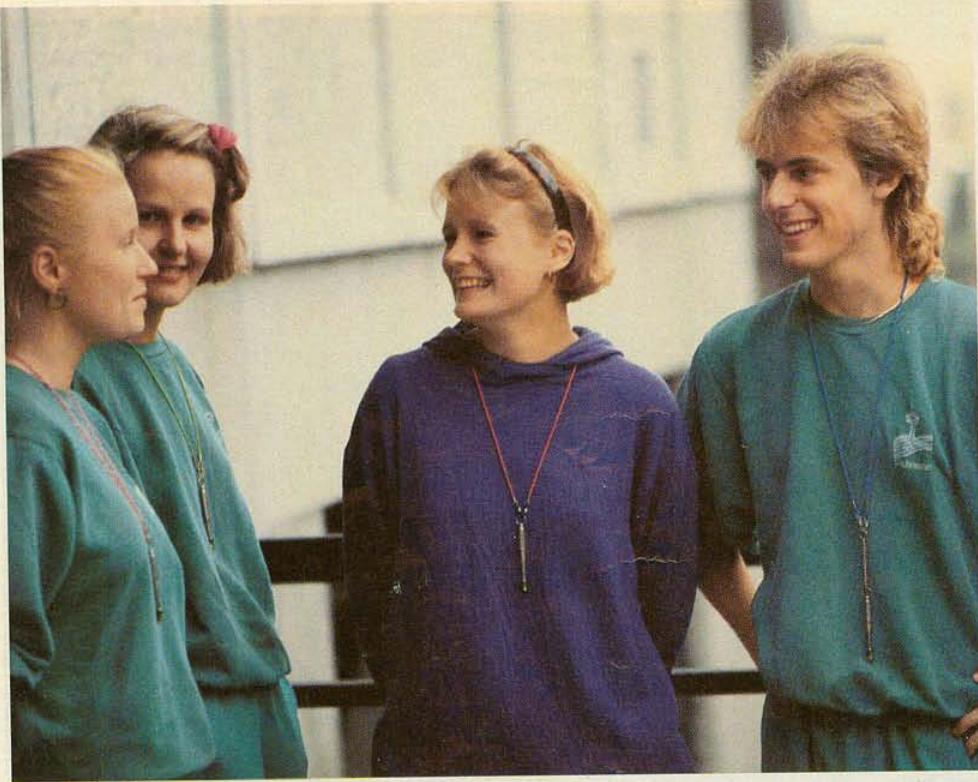
수족관 일자리에 대하여 처음 듣고 무척 흥분했습니다. 리사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고등학교에서 생물학을 공부했으며 그 외에 또한 수학, 과학, 물리 및 화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일자리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 밖에도 저는 늘 동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라고 리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 다닐 수만 있다면 대학 학비를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리사는 그 직업을 갖고자 하는 강한 열망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능력을 쌓았기 때문에 그곳에 고용되었습니다.

리사는 돌고래와 사귀는 것이 곧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매일, 리사는 돌고래의 음식을 준비하고 돌고래에게 비타민을 먹이고 같이 게임을 하고 박테리아 검사를 하기 위하여 돌고래 물탱크에서 물을 채집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돌고래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돌고래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일지를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실험실에서 행한 수질 검사 결과를 토론하거나 또는 동물에 관한 전문 잡지를 읽으면서 보냅니다.

또한 리사는 동료 조련사 및 연구원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돌고래 수족관에 모인 여행객과 관광객에게 돌고래 쇼를 소개하는 쇼 진행도 맡아 합니다.





늘 일 속에 묻혀 사는 날을 보내고는 있지만, 함께 일하면서 깊은 우정이 쌓여 갑니다. 관람객들은 흔히 조련사와 돌고래가 서로 얼마나 친한가에 대하여 평합니다.

가끔 리사는 템페레 스테이크 부장인 아버지 페카 로토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템페레의 유명한 실내 시장으로 가서 세계 각지에서 온 농산물이 쌓여 있는 사이로 나 있는 통로를 다니며 구경하기도 합니다.

리사는 돌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 동물임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전히 생선을 즐겨 먹고 있지만, 이제 청어는 먹지 않습니다. 청어는 돌고래 먹이이거든요.”

리사가 좋아하는 음식은 버섯입니다.

리사는 천성적으로 동물을 사랑합니다. 농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을 당시 리사에게는 애완용 말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제가 그 말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께서도 제 말을 사랑하실까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러실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저도 역시 주님의 모든 창조물을 사랑해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쨌든 지상의 모든 피조물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창조하셨으니까요.”

리사와 함께 돌고래에 관해 이야기해 본다면 그녀가 돌고래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돌고래들은 미국의 플로리다와 멕시코만에서 들여온 것으로서, 배로 수송해 오는 동안 몸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돌고래의 몸에 유액을 바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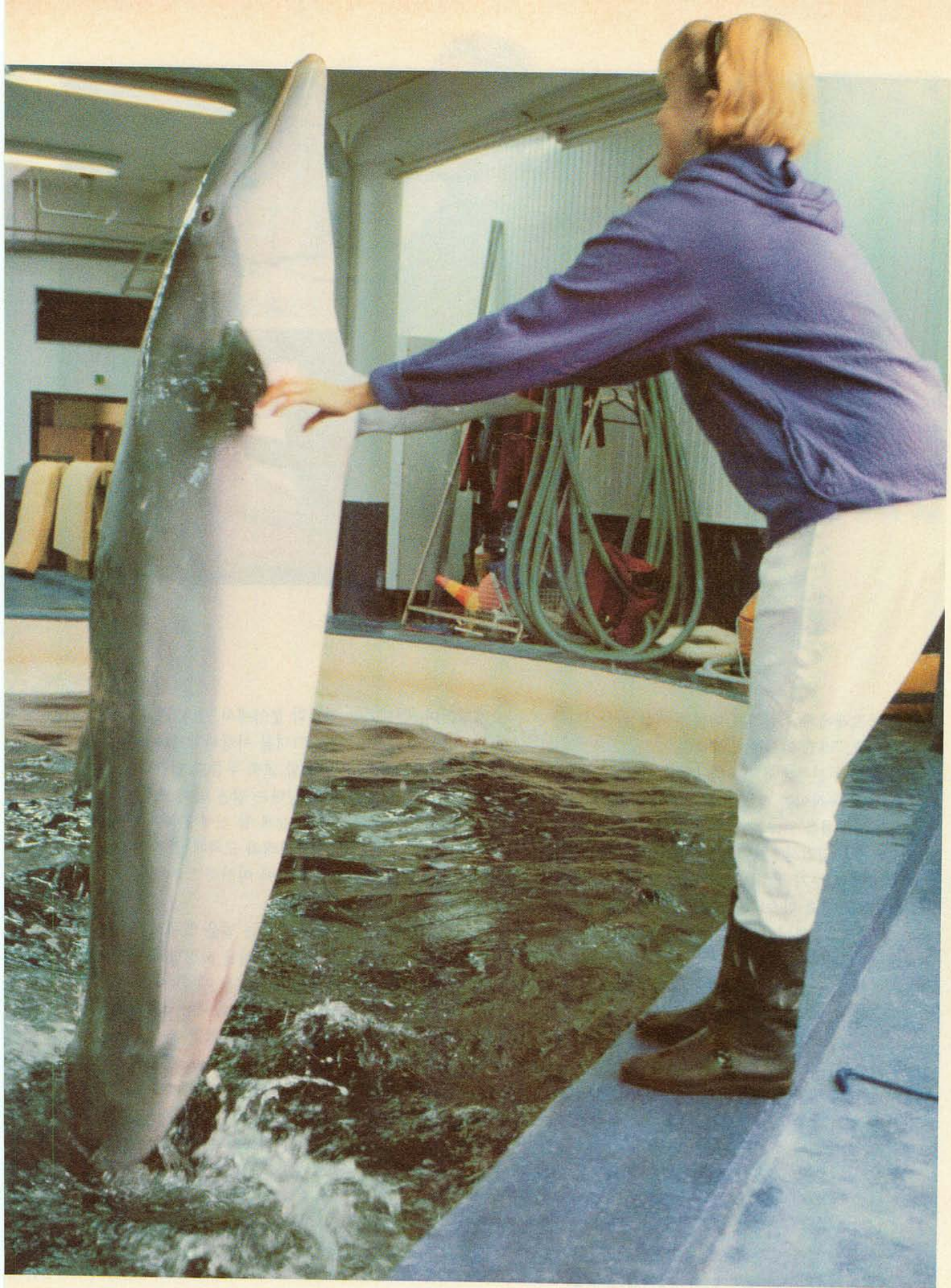
그리고 돌고래는 원래 죽은 생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죽은 생선을 먹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새끼 돌고래에게는 우유를 먹입니다. 그 중 하나가 병이 나면 다른 돌고래들은 그 돌고래를 가엾게 여기며 돌보아 줍니다. 돌고래는 매우 영리한 동물로써 일련의 휘파람 소리와 거의 새소리와 같은 높은 마찰음을 내어 서로 의사 소통을 합니다. 이 밖에도 돌고래는 몸 속에 있는 천연 수중 음파 탐지기를 사용하여 바닷속을 헤엄쳐 다닙니다.

돌고래는 선천적으로 점프를 잘 합니다. 그래서 조련사들은 돌고래에게 이 특성을 잘 살려서 꼬리로 뒷걸음질 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돌고래는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련사는 이러한 성향을 이용하여 돌고래에게 공과 고리, 바구니 등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리사는 돌고래를 무척 아끼고 사랑합니다. 리사가 물탱크에 물을 부으면 돌고래들이 물려와 얼굴과 몸으로 물거품의 감촉을 맛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사가 명령을 하면 돌고래들은 꼬리로 물탕을 튀기기도 하고 수영장 밖으로 미끄러져 나와 관광객들이 만져 볼 수 있게도 해줍니다. 그러는 동안 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돌고래들을 매우 부드럽게 대합니다.

“돌고래들은 제 친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리사는 매일 각 돌고래에 대한 일지를 씁니다. “저는 그저 친구들의 자취를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리사는 말합니다.



우리가 돌고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요.”라고 리사는 말합니다.

리사는 값진 진주에서 “나 하나님께서 이르되, 물은 생명을 지닌 움직이는 생물... 들로 번성케 하라.”(모세서 2:20)라는 구절을 읽고 주님께서 바다의 생물을 창조하셨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주님이 “모든 것을 지면에 물체로 두기 전에 영체로 만드셨다”(모세서 3:5)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리와 성약에 있는 성구를 언급합니다. “이는 나 주가 모든 산 자를 위하여 만들고 마련하여 준 세상의 축복을 관할하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모든 사람에게 지우게 함은 필요한 일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04:13)

“돌고래와 함께 생활하면서 저는 돌고래가 우연히 창조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전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른 동물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라고 리사는 말합니다.

이같은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은 리사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사가 생활을 전적으로 돌고래에게만 바치는 것은 아닙니다. 리사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계획이며, 언젠가는 경제학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합니다. 리사에게는 그녀를 사랑하고 칭찬하는 가족이 있으며, 성취해야 할 교회 부름도 있습니다.

리사는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며 또한 언젠가는 성전에서 결혼하여 가족을 갖게 될 것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 리사는 템페레의 교외에 있는 농장에 있는 동물들과도 친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농장을 방문합니다.

리사는 돌고래 수족관에서 하는 일을 일시적인 일자리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하려고 계획하는 일은 아닙니다.”라고 리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바꾸어 이번에는 연구하고 훈련시키고 사랑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것에 관해 이야기 합니다. 리사의 말에 의하면 “돌고래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상태의 우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

편집자 주 : 이 이야기가 쓰여진 이후 리사는 복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유타주 옥든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말빈 케이 가드너

역

사의 도시 예루살렘.  
골목보다 조금 넓은  
거리에서 짧은 옷에

썸그라스를 낀 관광객들, 각자가 속해 있는 종교 단체의 성의를 입은 성직자들, 기관총을 메고 있는 젊은 병사들, 유대인 특유의 테두리 없는 모자를 쓴 남자들, 흐느적거리는 옷을 입고 목자의 머리 장식을 한 아랍인 등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어떤 여인들은 어깨까지 휘감는 얼굴 가리개를 하고 있으며, 사무복 차림을 한 사람도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은 이처럼 혼잡한 인파를 헤치며 뛰놀고 있다.

그들의 언어로 수크라고 불리는 시장을 가로질러 가다 보면 여기 저기에서 물건을 사라고 외치는 소리와 흥정을 하는 소리로 귀가 멍할 정도이다. 물건의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점 앞에 물건을 내다 놓아 광고 효과를 내기도 하며,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광주리에는 땅콩, 호두, 과일, 야채 등이 수북히 쌓여 있다.

또한 수를 놓은 기다란 옷들이 머리 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며,

여기 저기에 있는 선반 위에는 올리브 나무로 새겨 만든 종교적인 목상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다. 이 밖에도 낫으로 만든 주방 기구와 구리 및 은으로 만든 접시, 반짝반짝 윤이 나는 아르메니아 도자기와 페르시아 융단 등이 줄줄이 놓여 있으며, 휘황 찬란한 금은 보석, 양가죽으로 만든 옷, 동방에서 온 진귀한 양탄자 등도 이곳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잘게 썬 야채에 양념을 섞어 튀기는 파라펠을 만들거나, 쉬스 케밥이라는 음식을 굽고 있는 사람도 있다. 갓 구어낸 빵의 향기가 알 수 없는 향료 냄새와 뒤섞여 퍼진다. 상인들은 가게 문 앞에 서서 행인들을 부르며, 라디오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의 갖가지 음악이 흘러 나온다.

아내 메리와 나는 기독교, 유대교 및 이슬람교와 관련이 있는 물건을 파는 조그만 가게로 들어갔다. 우리가 가게 안을 천천히 구경하자 주인인 듯한 키가 작고 마른 아랍 남자가 여러 가지 물건들의 사용법과 그것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그 남자는 우리에게 코란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다.

우리는 물건을 골라서 가격 흥정이라는 의례적인 행사를 시작했으며, 결국 적당한 가격이 정해져 주인에게 뺏뺏한 새 지폐를 여러 장 건네 주었다.

주인은 우리에게서 받은 돈을 세어보더니 한 장을 되돌려 주었다. 우리는 의외의 상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주인은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손님.”하고 말했다. 새 돈이라 두 장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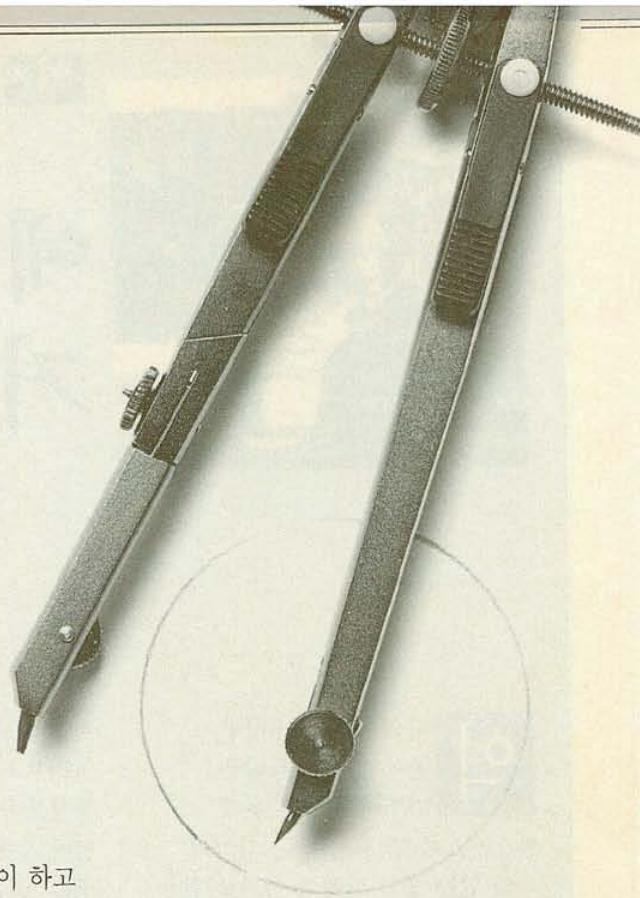
“감사합니다.”라고 메리가 말했다. “당신의 정직한 행동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주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손님들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제 스스로와 가족을 위해 정직한 것입니다. 부정한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싶지는 않으니깐요.”

그 시끄럽고 혼잡한 거리로 다시 나오면서 우리는 물건값을 깎은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뺏뺏한 새 지폐에 자신을 팔지 않았던 한 아랍 친구에 대한 추억이었다. \*

# 축복사의 축복에 따라 인생의 향로를 설계함

리차드 피 린지 장로  
칠십인 정원희



**제**가 어릴 적에 저의 아버지는 폐렴으로 돌아가셨으며, 며칠 후 열네 살 된 저의 형 또한 다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는 1930년대 초반으로, 미국이 한창 경제 대공황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매우 귀했으며 돈 또한 귀했습니다. 간호원이었던 저의 어머니는 남은 다섯 자녀를 위하여 참으로 힘들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누구나에게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제게 지금까지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기억에 생생한 일이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저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일 년 쯤 지나서 아버지의 사촌이신 이스라엘 벤연이 우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저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스테이크 축복사로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갈 때처럼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차려 입고 이 위엄있는 분이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사의 축복을 주실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저는 겨우 일곱 살로 축복의 말씀을 이해할 만한 나이가 못 되었지만(오늘날,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만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권고합니다.) 금식 간증회 때에 느꼈던 것과 같은 매우 경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록 축복의 말씀은 짧았으나, 제가 삶의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록 어렸지만 벤연 아저씨가 저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자라는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복음이 제 마음 속에 깃들며, 또한 주님의 사업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저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저의 미래에 대해

축복사의 축복이  
일생 동안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 축복사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감독과 의논함으로써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감독은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해 주며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감독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줄 것이다.
- 감독은 축복의 신성한 본질을 감사히 여길 수 있을 만큼 오래 교회에 다녔거나 충분한 나이가 된 사람에게만 추천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다.
- 가족의 일원이 함께 참석할 수 있지만 축복은 은밀한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금식을 하고 받을 수도 있다.
- 가까운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축복문을 비교하거나 함께 읽어서는 안된다. 교회 모임이나 공공 모임에서 읽어서도 안된다.
- 축복사의 축복은 행운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길잡이가 된다. 모든 축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축복사의 축복의 성취는 개인적인 간증과 그가 성령과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에 달려 있다.

언급하시면서 제가 언젠가는  
이스라엘 판사가 될 것이며, 자녀를  
갖게 되고, 건강한 몸과 건전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실제로 저의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일깨워 주신  
점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만일  
의롭게만 살아간다면 주님이 저를  
도와 주실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축복사의 축복문은 단지  
263개의 단어에 지나지 않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으며,  
해가 거듭되어도 축복문을 읽고 그  
내용에 관하여 깊이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전달되었습니다.

일곱 살 난 어린이에게 “이스라엘  
판사”라는 구절은 이해하기에 너무나  
의미가 깊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권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에  
저는 그것이 감독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감독이 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만약 감독이 될 것이라면  
더욱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직과 높은  
표준과 도덕적인 순결을 포함하는  
인생의 향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저의 축복사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분으로부터 감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세계 이차 대전중, 미  
해군으로 복무하였는데, 그 동안  
축복사의 축복문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유타주 텔러즈빌에서  
자라난,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차단되어 수줍음 많은 평온한 개척자  
마을 출신이었던 저는 입대하자 온갖  
욕설과 불경스러운 말을 보통으로  
사용하며,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부도덕한 성행위를 자랑하는 거친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축복사의 축복이 저를 밝히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축복을 통해 주어진 약속으로 인해 저는 그런 험한 환경 속에서도 정결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전쟁에서 살아 남아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봉사하며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축복문에서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관하여 언급된 구절을 떠올리며 제가 주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으며, 귀환하여 배우자를 찾고 있을 때에는 제가 합당하게 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축복문에는 의로운 자손들을 두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날 저는 여섯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는 것이 큰 기쁨이며, 자손들 덕택에 보람을 느낍니다.

저의 축복문에는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대는 주님의 사업이 크게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될지니 이는 시온은 발뒤꿈치가 아니라 머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라는 구절입니다. 저는 최근 주님의 교회가 전세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것을 보며 이 구절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비록 긴 내용은 아니지만 제게 주어진 축복사의 축복이 평생 동안 저를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문도 그것을 자주 읽고 축복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의 진로를 계획한다면 똑같이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시기에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유혹과 압력에 부딪혔을 때, 축복사의 축복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 신앙을 꾸준히 증진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

## 축복사의 축복

# 축

복사의 축복은 단순히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며, 또한 여러분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한 존재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 저는 제가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충분한 나이가 되었으며,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감독님과 상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충분한 나이가 되었으며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분들께 여쭙어 보십시오.

2. 부모님이 그분들의 축복사의 축복에 대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에게 들려주셔도 좋은 부분이 있는지 여쭙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 자신이 부모님에게 약속된 축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의로운 자손을 약속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의로운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3. 만일 부모님이 교회 회원이 아니거나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감독님이나 축복사에게 상의하십시오. 부모님을 적절하게 관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4. 저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합당치 못하다고 느낀다면 합당하게 되십시오. 의로운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부모님이나 감독님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배우는 중이며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도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5. 저는 주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려 주실 것이며, 그러면 제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해야만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실 주님은 의로움, 순종, 사랑, 정직 등 이미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많이 알려 주셨으며,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와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그리고 신권을 받을 때 이미 이것들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사랑의 표시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축복사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자신의 놀라운 잠재력을 깨닫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경우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도록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큰 축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





## 독신 여성의 인생의 목적

저는 여성으로서 인생의 최고 목적은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독신 여성으로서 제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임



메리 앨런 에드먼즈 자매는 유타주 프로보 소재 선교사 훈련원 원장 보조이며 상호부조회 본부 임원회 임원이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하는 많은 독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와 자신의 발전 및 이웃에 대한 공헌의 가능성을 깨닫고 그 잠재력에 관한 올바른 견해를 갖는다면 그 차이는 매우 클 것입니다.

모세서 1장 39절에서 주님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이 곧 그분의 사업이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순종이나 의로움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어떠한 상태나 행위 또는 태도나 생각 여하에 따라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이나 그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 또는 주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합당성이 변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가치는 전지 전능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영원한 것입니다.

독신 여성으로서 만일 제가 기혼인가 미혼인가의 여부와 자녀가 있는가에 근거해 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저의 가치에 대한 그분의 느낌을 판단한다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과 자녀가 행복을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듯이 결혼을 안했고 자녀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가치나 목적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녀가 있지만 생활에 쫓기듯 살면서 자긍심을 잃고 외로움에 지쳐 좌절한 어머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말일성도 독신 회원들이

절망에 빠져 자기를 외부와 격리시키고 자긍심과 자아상을 잃은 채 버림받고 배반당했다고 느껴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독신 여성들이 스스로를 가두려는 벽을 제거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는 것같이 보일 때,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바람직한 길은 우리 자신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며, 노력하는 가운데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유익을 얻으며 매일 매일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남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으며, 나 또한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나눌 때에라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본위의 삶, 불평하는 마음, 영적인 고뇌 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세상에는 아무런 생애를 다 바쳐도 혼자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여 자신의 소망과 필요 사항만 최우선으로 두는 데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남과 함께 지내려는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또는 그들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의 위대한 목적 중 하나는 사랑과 존경으로 단합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며,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처럼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성 38:24~27 참조) 우리는 우리가 남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듯이, 우리가 남을 돕고 축복해 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도 모두 독신자들, 특히 독신 여성들을 도와서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소속감을 느끼며 뭔가 공헌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통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할 때에는 더욱 친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며, 또한 구세주의 재림을 대비하여 세상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어느 때라도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들을 하나 하나 되새겨 볼 때, 자신이 평화롭게 되는 의미 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송드리며,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갖고 있지 못한 것 대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인생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육신을 받았고, 회개하며 변화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시간과 자유 의지도 주어졌고, 신발과 물, 그 밖에 읽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마치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같이 말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해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는 약속을 받았습니 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여성이 이 세상에서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여러분이 합당하고 충실하게 견디면, 여러분은 친절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게 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축복을 간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세까지 기다려야 훌륭한 동반자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드립니다. 시간은 오직 사람만이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영원한 전망을 마음 속으로 하고 계십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교회의 독신 성인 자매들에게”,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110쪽)

우리는 어떤 특정 상황이 우리의 행복이나 자신의 가치를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이 처하게 되는 모든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신앙과 감사의 마음을 추구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지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며,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며 우리의 가치 및 인생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



# 사랑 - 비이기적인 봉사

“사랑이 결코 실족하지 아니함이라.”(모로나이사 7:46)

우리는 이 성구의 의미나, 이 성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때 이 성구가 참된 것이라고 믿는 간증을 얻을 수 있다.

##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사랑은 어느 지역,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는 자매를 막론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원리이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불편한 때에라도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봉사할 수 있다.

물론은 우리에게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모로나이사 7:47)”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참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주변에서 매일 찾을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시 근교의 소위토에 사는 줄리아 마빔벨라 자매는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녀가 일하는 분야는 문맹 퇴치와 주민들의 사회 문제이다. 정부와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 외에도, 그녀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실직된 많은 부모의 아이들과 같이 정원 일을 하기 시작했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정원 손질 기술을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많은 새로운 가정에 정원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 그들이 정원을 만드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지켜 보면서,



그들도 정원 만들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줄리아 자매는 일시적인 고통을 덜도록 노력하였음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필요 사항과 영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참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 평범한 방법으로 봉사함

봉사의 기회는 대개의 경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듯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세계의 자매들이 방문 교사로서 비이기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 그들은 종종 크나큰 개인적인 희생을 하면서 다른 자매들을 사랑하고, 격려해 주고, 따뜻이 환대하며, 가르치고 강화시켜 주며, 주님이 친히 쓰시는 도구로서 봉사하고 있다.

어머니들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들의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쳐 훈련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

자매들은 종종 교육계나 활동 분야에 진출하여 2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종사하기도 한다.

사랑으로 가득 찬 자매들은 좌절하고 비탄에 잠긴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 준다. 그들은 어떠한 비판이나 비난도 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마태복음 25:40)에게 봉사한다. 그들은 “연약한 자를 복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교성 81:5)”하기 위해 애쓴다.

사랑을 실천하는 평범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힘써 노력함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을 요청받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자매들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 의사로써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할 수 있으니 이는 그들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기”(교성 58:27~28 참조) 때문이다. 한 사람씩 돌보신 구세주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대 이상의 친절을 보일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것과 같은 연민으로 남을 위해 봉사할 때,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에게 주님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저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저와 같이 될”(모로나이사 7:48)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가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베풀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 스트레스와 실의에 대처함

호

화로운 연회에 초대를 받아, 그곳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잘 차려진 식사를 제공받기로 되어 있다.

자리에 막 앉는데, 식사 시간이 삼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만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즐거운 연회를 기대했던 기분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생겨나리라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통해 인간사에는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는 있다. 위와 같이 잘 차려진 음식을 만족스러울 때까지 먹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3분 이상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요하게 되면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데에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 활동에 관여해 놓고 생각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는 데에서 그같은 느낌이 올 수 있다. 이 밖에 가족 중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신경 과민이 되며 인내력을 잃고 지치게 될 수도 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그 끝이 없다. 어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의 순위를 매기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로 스트레스는 어떤 사건 자체로 인하여 야기된다기 보다는 사건에

반응을 보이는 방법상의 문제이다.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의 능력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놀랄만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인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리하이가 지적한 대로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상대적인 것이 필요하다. (니파이아서 2:11~16 참조) 연구 발표에 의하면, 스트레스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일을 두려워 할 대상으로 보다는 하나의 성장을 위한 도전으로 인식하게 된다. 심지어는 주당 60시간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 낼 결의만 있다면 진취적이고 흥미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유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보다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원인을 알아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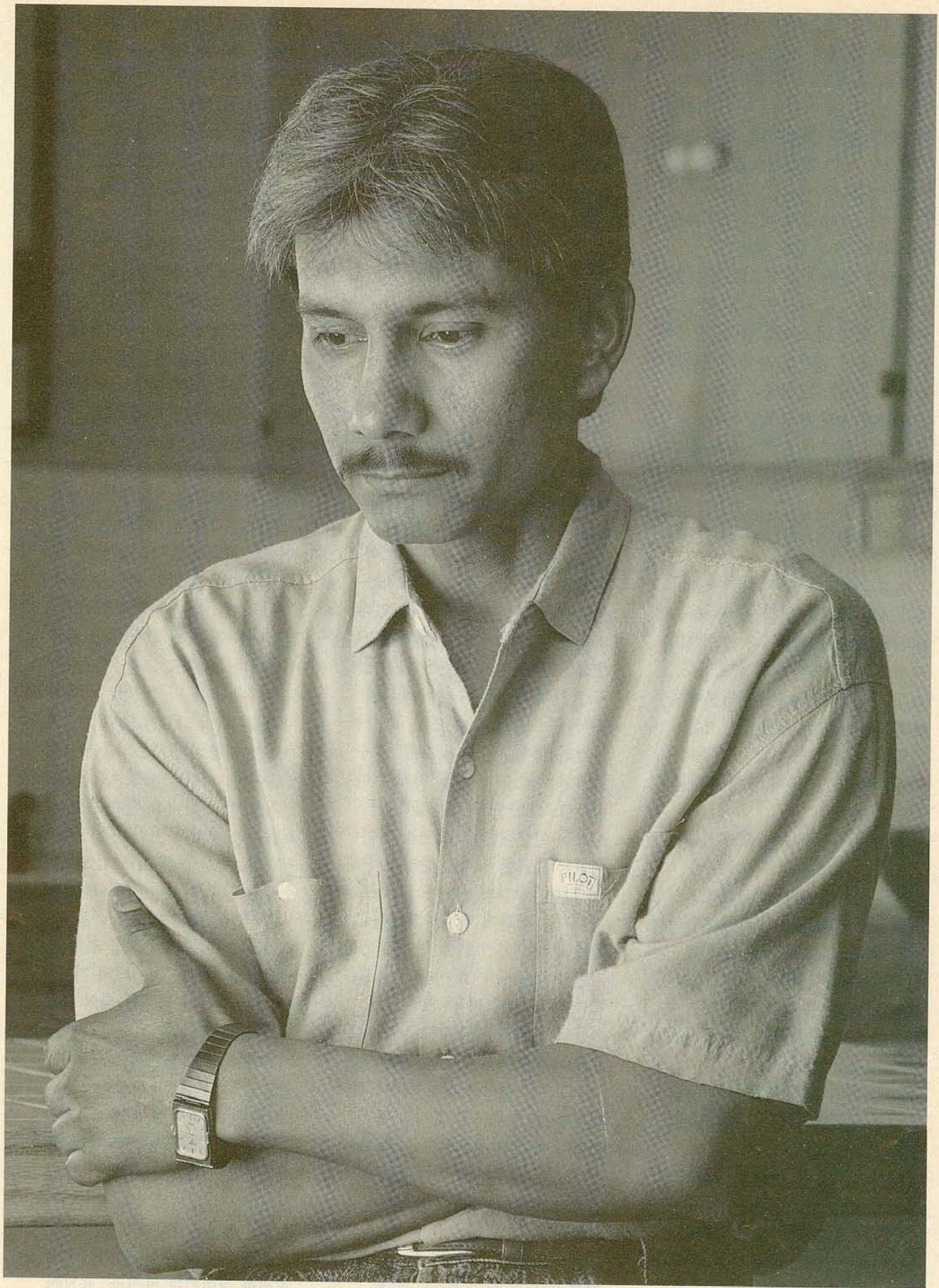
## 스트레스와 긴장

엔지니어는 스트레스가 모든 구조물에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구조물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을 긴장시킨다고 하고, 구조물의 스트레스 점을 긴장시킬 때 그 구조물은 손상을 입게 된다. 마찬가지로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가 일정 선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생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며, 그러한 상태에 이른 사람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부모가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녀의 일이나 성취도에 있어 완벽을 요구하게 될 때, 그와 같은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생애 동안 완전에는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제시하신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생활 속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이 더 이상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무엇이 남아 있을까 하는 회의가 생길 때,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도록 이 세상으로 보내셨음을 깨달음으로써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거나 사악해지도록 예임받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일 때(다니엘 5:27), 우리가 이미 이전에 헤아림을 받았으며 자신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좀더 훌륭한 제자가 되겠다는 결의를 갖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과중한 부담을 느낄 때에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능력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견디어 낼 수 있는 이상의 것을(교리와 성약 50:40)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오늘날의 시련에 대응함”, 올해의 말씀, 프로보 : 브리감 영 대학교, 1978년, 156쪽) 때때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자신의 역량 이상으로 많은 것을 하려 하는 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시도하는 모든 일이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 마음상해 한다. 완전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바램인 반면에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현실적인 것을 기대해야 하며 우호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스트레스에 대처함

현실감을 유지하는 것은 생활이 우리에게 가하는 긴장을 해소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이것 이외의 다른 방법들도 있다. 다음 사항들 가운데는 여러분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 여러분의 의견을 나눈다.

**영적인 건강을 유지함**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신앙과 소망과 마음의 평화라고 불리우는 영적인 저장고를 가득 채울 수가 있다.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특수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도 도움을 얻는다.

**빛을 지지 않음** 재정 압박은 가정 불화의 비근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예산을 세우고 빛을 지지 말라고 항상 권고한다. 수입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만 있다면, 이 일 하나 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재정상의 압박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신체의 건강을 유지함**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휴식과 운동 및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필요로 한다.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 역시 육신의 피로를 푸는 훌륭한 방법의 하나이다.

**우선 순위와 목표를 정함** 만일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다 성취할 수 없다면, 우선 순위를 정하므로써 최소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할 수 있다. 개인이나 가족별로 일일 목표, 주례 목표, 월례 목표 및 장기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으며, 그런 다음 계속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려면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을 세움으로써 일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했던 필요 사항이 생기거나 꼭 해야 할 일을 망각하여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를 피할 수 있다.

**습관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에 변화를 줌**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한 시간 일찍 기상하는 것이 생활을 좀더 잘 조절할 수 있으며, 그만큼 시간의 여유를 갖고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낮잠을 자는 것이 생활에 필요한 활력을 준다고 한다.

**생활에 약간의 변화를 줌**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에 대처하기 위해 생활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 또한 기분을 새롭게 하고 마음에 평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 잠시 시간을 보내거나 조용히 명상에 잠겨 보는 것, 그리고 양서를 읽는다거나 잠시 일손을 놓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포함해 특별히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등, 이 모두가 과중한 삶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려운 점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함**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문제점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과 협조해 스트레스를 낳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일기에 적어 보는 것 또한 일상 생활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이 개인 일지나 노트에 그들의 느낌을 적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어떤 대가족의 한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제 노트와 일지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문 상담가로부터 그들의 머리나 마음에 들어있는 설명을 듣기 위해 기꺼이 값을 지불합니다. 제 경우는 제 느낌과 생각을 일기에 적는 일이 제 자아에 관해 충실히 토로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유에서든 스트레스를 받아 실의에 빠졌거나 낙담하게 될 때엔 그 느낌을 일기에 적습니다.(때때로 그저 ‘나는…… 느낌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은 무엇이 저를 괴롭히는지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따금 좌절스러운 상황을 일기에 가득 써내려 가다 보면 저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내게 됩니다. 글을 통해 제 자신에 대해 소상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인생을 즐김** 어떤 사람은 그저 좀더 휴식을 취하고 생활이나 자녀들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며, 배우자 및 친구와의 관계를 즐길 필요가 있다. 때때로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 하나님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망각하며(니파이삼서 17 : 20 참조), 또한 인생의 경험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함인 것도 잊고 지낸다.(니파이이서 2 : 25; 교리와 성약 93 : 33 참조)

**유모어를 잊지 말 것** 인생이 비록 진지한 것이기는 하지만, 유모어



갑작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는 순간은 많다. 만일 생활하는 가운데 때때로 웃고 지낼 수만 있다면, 생활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가정에 웃음이 깃들게 하는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마찰을 경감시키는 훌륭한 방법이 된다.

## 실의에 대처함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힘든 느낌들로는 실의, 좌절, 우울, 죄책감 및 근심 등이 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람의 마음이 물질적인 면에서는 물론 영적인 면에서도 사람을 실망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성 45:26 참조) 많은 사람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용기를 잃고 있습니다. 자살이 대학생들의 가장 으뜸되는 사망의 통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결이 여러 가지 필연적인 고난과 역경을 거쳐 막바지에 이른 이 때, 사탄은 성도들을 절망과 실의, 낙담, 억압 등으로 성도들을 억누르기 위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성도의 벗, “절망하지 마십시오”, 1987년 3월, 2쪽)

이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회피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다. 애매모호하고 그 성격이 불투명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대개는 풀린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들의 느낌을 부모에게 표현하도록 가르치면 자녀들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어려움을 당할 경우에도 이에 대항해 갈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된다.

한편 불행히도, 심지어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눠주는 부모들까지도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복잡하게 되거나 너무 오래 경과될 경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자녀들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자신이나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실망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계명인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며,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독서하고 인내하며 영과 육을 고양시키는 음악을 듣고 친구를 사귀며, 힘과 영감을 주는 신권 축복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다.

부모에게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정서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에 가장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의 다음 권고 말씀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기적은 고통받는 영혼을 북돋아 주고 치유해 주는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의 사랑이 참되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연차 대회, 1973년 10월)

애쉬튼 장로의 권고를 따를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들이 느낌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가끔 마음이 상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거나,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가족을 판단하지 않는다. “네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면…” 혹은 “만일 …을 한다면 이러한 일이 생길텐데라고 너한테 얘기 했잖니.” 등과 같은 말은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만 더 상하게 할 뿐이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선 책임이 없으며 그로 인해 벌칙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도와 준다. 만일 가족이 자신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스스로를 용서하고 회개함으로써 과거 일은 묻어두도록 도와 준다.

가족이 영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준다. 그에게 인생에서 시험받는 목적을 상기시켜 주고, 희망을 붙여 넣어 준다. 함께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주님께 영원의 관점에서 문제점에 대해 필요한 이해력을 주시기를 간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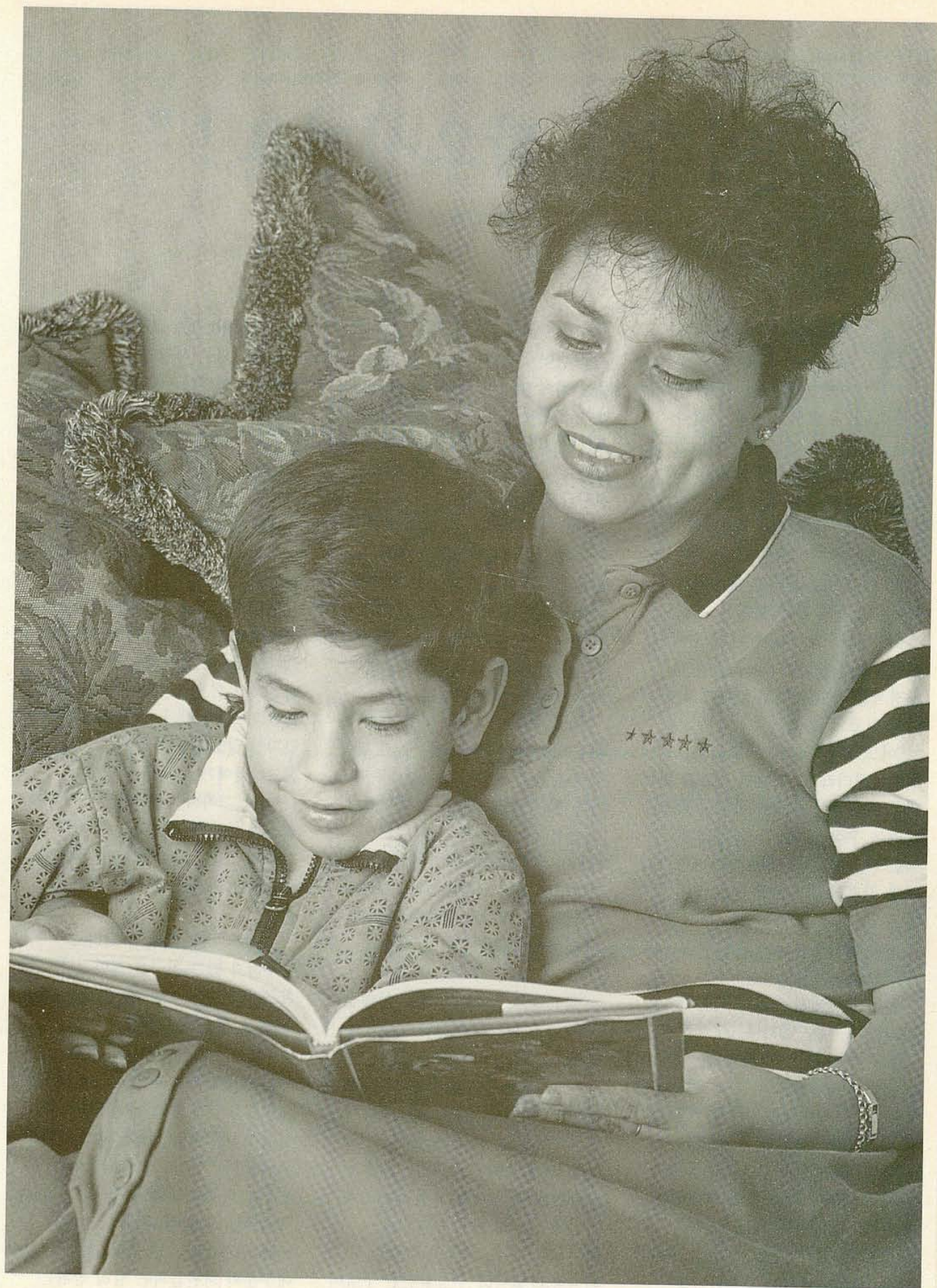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자녀나 배우자가 문제에 대해 토론하거나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할 때 같이 있어준다. 때때로 그저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심란한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가족에게 함께 기도하고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명하도록 권유한다.

가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최선의 방법은 역시 가식없이 사랑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내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격체로, 마치 주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듯이 가족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이러한 일을 행해야 한다. 이같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약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떠한 문제라도 극복해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적도 없으며, 누구도 복음이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지만, 복음은 인생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반대 세력과 저항의 물결에 대처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게 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누가 복음 2:52)게 해 준다. \*





# “머리나 꺾으시지요!”

제리 맥킨

여러해 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나는 이발소에 앉아 이발사가 가위로 내 귀 언저리 머리를 잘라 내는 소리를 들으며, 빨리 끝나서 밖으로 나갈 수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가슴을 갑갑하게 내리누르는 것은 더위뿐이 아니었다. 이발사의 말에 의하면 그가 “스테이크 선교사”라고 했는데, 어쨌든 일종의 몰몬 교회 선교사였다. 그 사람은 내가 전에 이발하러 왔을 때 그의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느 교회에 다니신다고 말씀하셨더라?” 이같이 미묘한 말로 나를 유도해서 종교에 관한 토론을 하려는 수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나는 다음엔 무슨 이야기가 나올 지를 간파하고는 숨쉴 틈도 주지 않고 “머리나 꺾으시지요, 나에게 전도할 생각일랑 마세요!”라고 대꾸했다.

몰몬은 나에게 새로운 이름이 아니었다. 나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났으며, 워드 건물에서 하는 보이 스카웃 모임에 참석한 적도 있었다. 절친한 친구들도 대부분 몰몬이지만, 그 친구들도 나에게 교회에 대한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아마도 내 태도가 너무 완강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번은 보이 스카웃 모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친구에게 벽에 걸려 있는 큰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여러 달 동안 매주 그곳에 앉아 그 그림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친구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몰몬경의 금판을 보여 준 천사라고 말했다.

천사! 어떻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지식인이 그같은 존재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간 세월이 지난 후에 나는 몰몬 교회와 처음으로 심한 대결을 하게 되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피할 수 없는 대결이었던 것 같다.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두 명의 여자 몰몬 선교사가 문을 두드렸다. 그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나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마치 올라미에 걸려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반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성경을 믿으십니까?” 두 선교사가 먼저 시작했다.

“물론이죠.” 나는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대답을 했다.

선교사들은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읽으면서 신회에는 서로 다른 인격체로 되신 세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 주려고 애썼다. 그런 후 그들이 늘 하던대로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갔다. 나는 그들이 경전을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할만한 구절이

있음을 알았지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만 했다.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리고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토론을 해도 좋겠느냐고 묻자 선교사들은 좋다고 대답했다.

다음 주, 나는 종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촌과 함께 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관자의 입장에서 서로 오가는 토론을 듣게 되었다. 그때 만일 내가 편견을 갖고 있지만 않았더라면 몰몬 선교사들에게 승리를 선언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촌의 지식이 충분치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좀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기로 했다.

주 중에 나는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갔다. 그 친구라면 나에게 필요한 지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나는 그 친구에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있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내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라운 대답을 했다.

“미안해, 그 점에 대해서는 자넨 도울 수가 없어. 난 우리 교회 대부분의 회원들과는 달리 삼위는



“어느 교회에 다니신다고 말씀하셨더라?”라고 이발사가 물었다. 나는 숨쉴 틈도 주지 않고 “머리나 깎으시지요, 나에게 전도할 생각일랑 마세요!”라고 대꾸했다.

일체가 아니라고 믿는 쪽이야.”라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는 목사로서 이전에 나와 여러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친구였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무엇을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목사의 이 말을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대한 대답으로 하기에는 더욱더 만족스럽지 못했다.

나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선교사들과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 사실을 선교사들에게 알렸다. 그러자 그들도 나에게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물몬경을 한 권 선물하고는 떠나버렸다.

몇 년 후,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나는 옆 아파트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을 보았다. 그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안도의 숨을 쉬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 앞에는 선교사들이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이 말도 채 꺼내기 전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문을 닫아 버렸다.

그후 몇 년 동안 나는 가는 곳마다 물몬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심지어는 이발사까지도 나에게 전도를 하려고 애썼으며, 선교사들도 몇번이나 바뀌었지만 계속 나를 방문했다. 이 년 전에 찾아왔던

선교사들을 문전 박대한 것이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물몬경과 소책자들을 차 안에 두고 나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러면서도 선교사들이 찾아오는 것이 달갑지가 않아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어떻게 하면 지나치게 무례하지 않은 태도로 이 사람들을 떨쳐 버릴 수 있을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지! 없긴 왜 없겠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교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의 교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그것도 그들의 경전을 가지고 증명해야 되겠어. 나는 다음 번에 선교사들이 찾아올 때까지 준비를 완료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만일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알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몇 년 전에 두 자매 선교사가 준 물몬경이 있었다. 그렇지! 전에 그 책을 어떤 서랍이나 상자 속에 치워 두었던 생각이 났다. 나는 금방 그 책을 찾아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 요셉 스미스의 생애에 관한 기록일까? 아니면 물몬주의의 역사일까?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알 리가 없었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음에 선교사들이 찾아올 때에는 그들에게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나는 출근할 때 물몬경을 가지고 갔다. 마침 그날은 한가한 시간이 좀 있었다. 그 책을 읽을 기회를 처음으로 갖게 된 것이다. 나는 책을 펼쳐 들었다. 뭐 이래, 요셉 스미스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 앞 페이지를 읽어보니 미대륙에서 행해진 산상수훈, 콜럼버스, 미대륙에 나타나신 구세주와 같은 흥미를 끄는 내용들이 있었다. 무엇을 찾아내야 할 지 막연하기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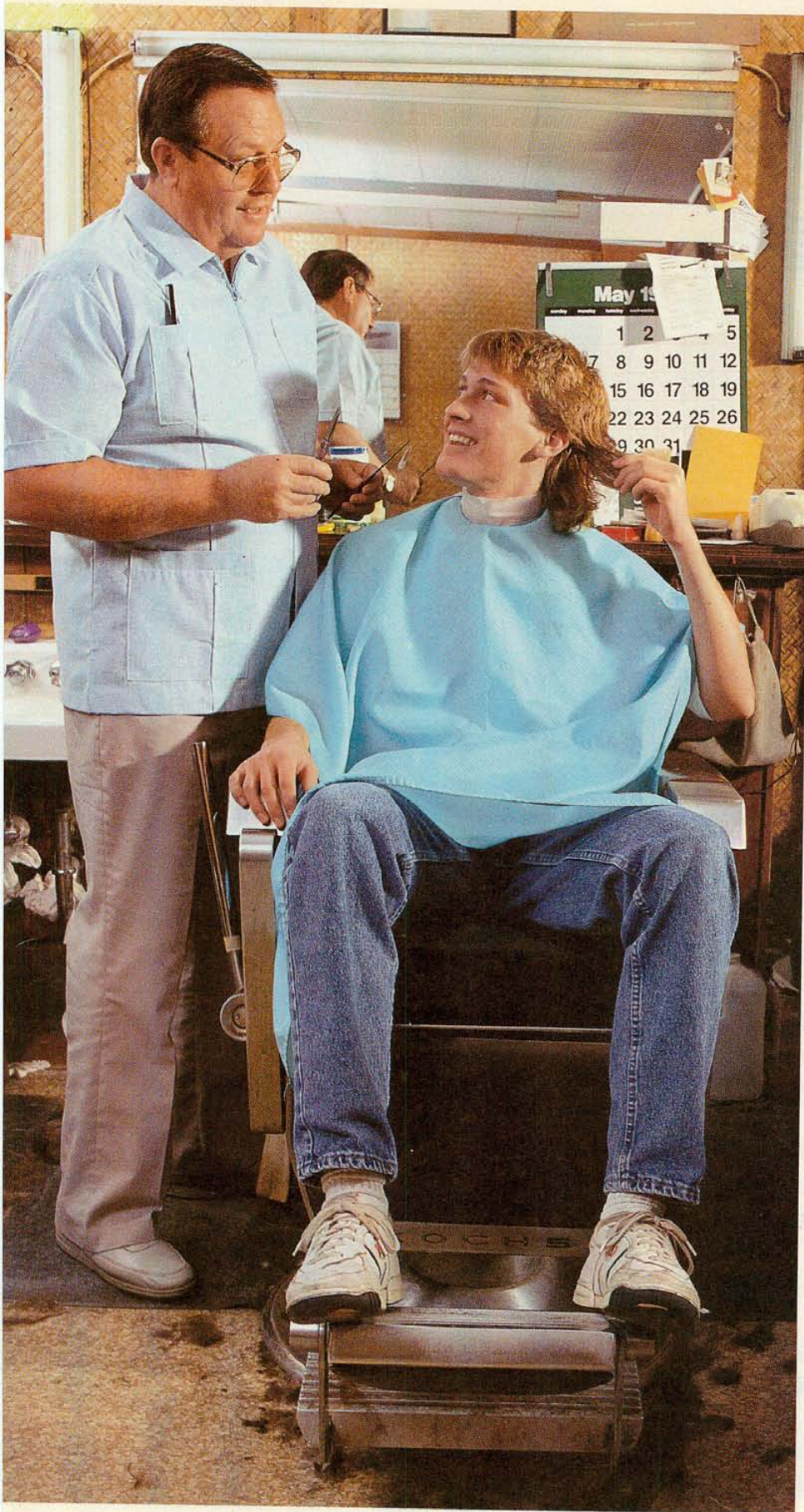
그 책에서는 요셉 스미스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나는 물몬이 소유하고 있는 주유소에 있는 소책자를 몇 권 집어 왔다. 내가 알아내고자 한 것은 이 요셉 스미스에 관한 내용이었다. 나는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을 읽었다. 내가 몇 년 전에 들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다. 나는 모로나이 천사와 금판에 대하여 읽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물몬경을 읽어 나갔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적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선교사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던 내 의도가 모두 사라졌다. 물몬경을 처음 펼쳤을 때 잠시 일어났던 호기심이 그 책을 알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하였다. 실제로 나에게

손을 뻗어 이 책으로 끌어들이듯한 이 이상한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그 이유를 알아야 했다.

나는 틈만 있으면 물몬경을 탐독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모로나이라는 고대 예언자가 한 약속인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알려 달라고 간구하면 물몬경이 참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당당한 선언이었다. 어느날 혼자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물몬경을 손에 들고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나를 이 책에 몰두하도록 한 힘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를 기도했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과거에 내가 적대감을 가지고 했던 행동들이 기억 속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나는 그때까지 내가 불쌍한 처지에 있었음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빌었다.

그후 며칠 동안 나는 물몬경 읽기에 빠져 지냈다. 그런 뒤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 날은 교회의 10월 연차 대회가 열리기 전 목요일 밤이었다. 직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느낌이 들더니, 그 느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는 가운데도 그 느낌은 점점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놀라운



나는 “오늘은 머리를 특별히 잘 깎아 주세요. 교회에 가입하려고 하나가요.”라고 말했다. 이발사의 입이 딱 벌어졌다. 그는 “어느 교회입니까?”라고 물었다.

느낌이었다! 나는 “만약 이것이 천국에서 느끼는 것이라면, 지금 내가 아흔 아홉 살이 되어 죽을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과거에는 귀찮게만 생각되었던 선교사들이 믿고 있던 그 확신이 나에게 간증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비로소 나는 알게 되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과 아들을 보았으며,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다. 정말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 다음 주는 정말 즐거운 주일이었다. 나는 서둘러 이발소로 가서 “오늘은 머리를 특별히 잘 깎아 주세요 교회에 가입하려고 하나가요.” 이발사는 입을 딱 벌린 채 잠시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매우 진지한 태도로 “어느 교회입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발사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발사가 나의 첫번째 감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이 년 전에 그가 스테이크 선교사로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 그의 면전에서 문을 광 닫은 무례한 사람으로서 그를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유타주 옥든에 사는 제리 맥킨은 워싱턴 테라스 유타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선교사이다.

# 통가 섬의 성도들

## 신앙의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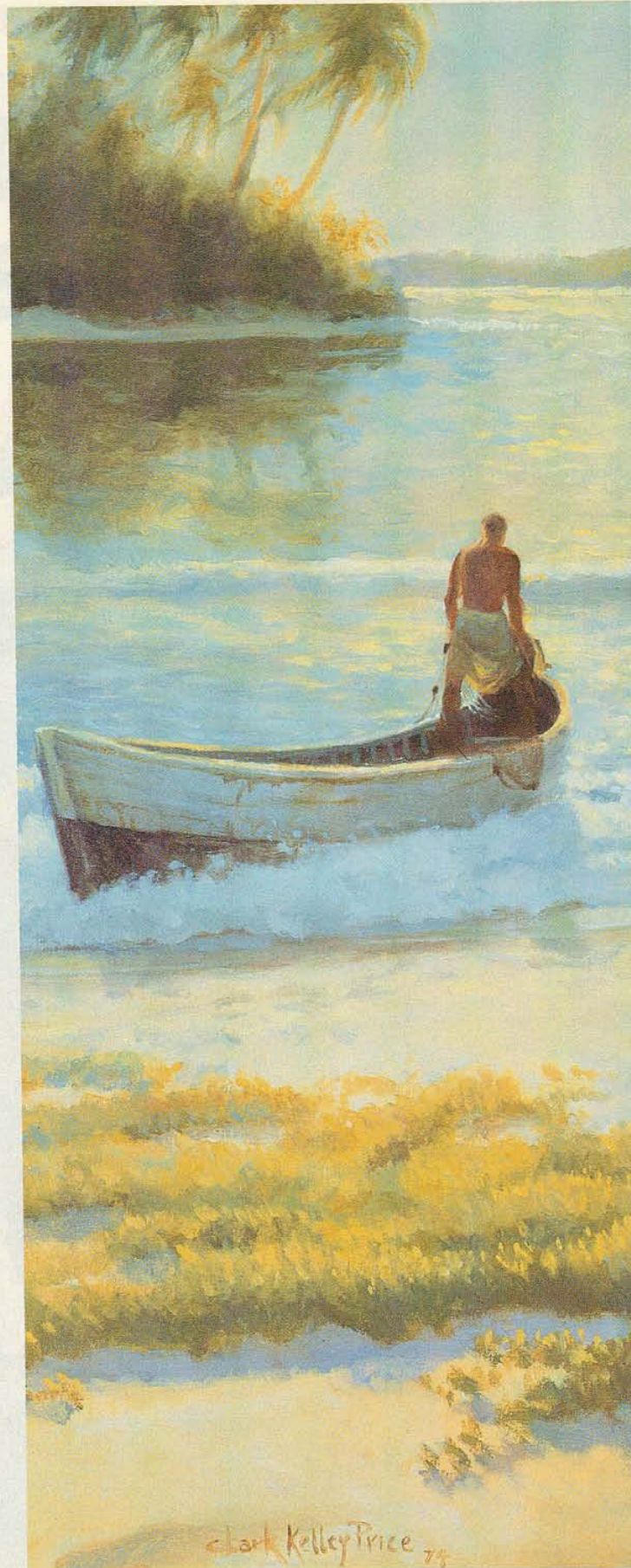
에릭 비 섬웨이

**통**가에서 봉사했던 초기 선교사들은 1991년 8월에 있을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아마 기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브리감 스무트 장로와 엘바 버틀러 장로가 선교 사업의 문을 연 지 5년 7개월만인 1897년에 선교사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사모아 선교부를 폐쇄했었기 때문이다.

1891년부터 1897년까지 어림잡아 20명의 선교사들이 프렌들리 군도(영국인 탐험가 제임스 쿡 제독이 1773년에 이 섬을 방문하여 붙인 이름)에서 봉사하며 겨우 15명의 통가인에게 침례를 베풀었을 뿐이었다. 통가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선교 초기에 이루어 놓은 기독교적 전통이

**위:** 스무스 장로와 버틀러 장로는 통가에 도착하던 첫날에 조지 1세 왕을 방문하여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허락을 받았다.

**오른쪽:** 현재 원주민 선교사들은 흰 셔츠와 넥타이에 그들의 전통적인 복장인 투페누와 타오발라스를 곁들여 입는다.



Clark Kelley Price 73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 (다음 기사 참조)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곳 주민들이 미국에서 건너간 말일성도들을 멀리하도록 만든 것은 그들이 왕과 그의 종교에 대해 느끼는 의무감이었으며, 여기에 그의 양떼를 놓치지 않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살피는 목사에 대한 의무감도 이들의 마음을 선교사들로부터 떼어 놓았다.

1907년에 다시 문을 연 선교부는 처음에는 성장이 둔했으나 점차 성장 속도가 빨라져서 결국은 수많은 회원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지금은 통가와 인근 지방을 합쳐서 약 3만 명이 넘는 회원이 있으며, 10개의 스테이크에 90개의 예배당이 있고 12개의 중학교와 2개의 고등학교 및 하나의 성전이 세워질 만큼 괄목할 만한 기적을 이루었다.

오늘날 통가에서 교회가 회원 수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활동과 헌신에 있어서도 것처럼 눈에 띄는 성장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발전이 저조하던 통가 선교부를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을 하는 선교부의 하나로 변모시켰을까?

그 답을 회원들의 개인 역사와 생생한 간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통가에서 교회가 발전하게 된 공통적인 원인은 통가 성도들이 주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데 놓여 있는 거친 자연 환경 및 개인적인 습성과 편견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강한 신앙임을 알 수 있다.

### 아기를 던지세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거친 자연 환경을 극복하는 이야기는 통가인들의 신앙 이야기의 흔한 주제이다. 통가 성도들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거친 바다를 여행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축복을 받았다.

지금은 하와이 라이에 있는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셀라 페잉거 자매는 1965년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통가의 여러 섬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어느 날 페잉거 부부는 고열로 앓고 있는 태어난 지 5개월밖에 안된 딸을 데리고 바다 한 가운데 외파로 떨어져 있는 포투하아 섬으로 가고 있었다. 섬의 해안선은 절벽으로 되어 있었으며, 절벽 근처에는 거친 파도가 일고 있었다.

포투하아로 가는 여행자들은 섬 근처에서 모터 보트를 내려 현외 장치가 달린 카누로 갈아 타고 절벽 가까이로 가서 깊은 물 속에서 빠져 나온 바위를 향해 헤엄을 쳐 가야 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카누에서 던지는 짐을 잡기 위해 절벽 위에서 서 있는 섬 주민이 뺨을 잡아야만 했다. 그러한 상륙 방법은 굉장히 위험했다. 왜냐하면 파도가 4미터 내지 6미터에 달하는 절벽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를 맞추어 손을 잡아 건너 뛰어야 했기 때문이다. 페잉거 자매는 그러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나를 만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출발하는 날 아침에도 아기의 열은 여전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기 몸 전체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홍역이었다. 남편에게 아무리 간청을 해도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나는 아기를 담요에 감싸 안고서 우리를 포투하아까지 데려다 줄 조그만 배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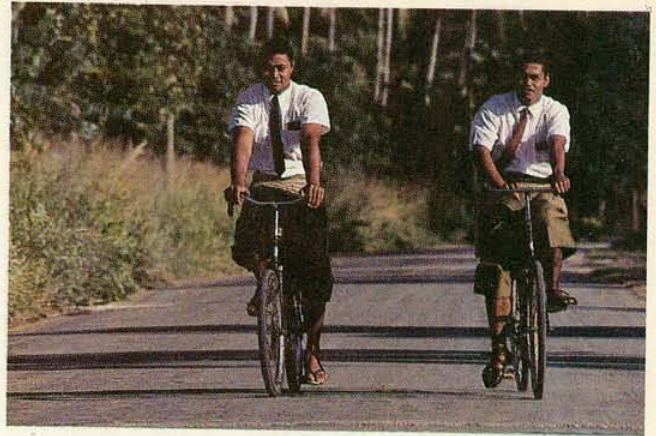
멀리서 섬을 향해 접근해 가자 그 무시무시한 절벽과 바위 투성으로 된 해안선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엄청난 파도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몇몇 섬 주민들이 이미 절벽 위에 모여 우리와 우리가 가져 온 짐을



왼쪽 끝 : 1983년 헌납된 통가 누쿠아로라 성전.

왼쪽 : 셀라 페잉와 남편 하웅가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잠깐 동안이기는 했으나 아기와 떨어져야 하는 괴로움을 당했다. (아래의 “아기를 던지세요” 참조)

오른쪽 : 이 젊은이들과 같은 원주민 선교사들이 점점 더 많이 선교사로 봉사하며 통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 섬에 살고 있는 한 젊은 교사가 우리를 해안으로 데려갈 현외 장치가 달린 조그만 카누를 타고 우리가 탄 배로 다가왔다. 우리가 카누를 타고 바위 절벽 가까이까지 갔을 때, 그 젊은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파도 높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큰 파도가 밀려와서 카누가 절벽 꼭대기까지 높이 올라가면 손님들은 바위로 건너 뛰어가든가 아니면 저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갖고 오신 물건들을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자 나는 두려움으로 온 몸이 마비될 것만 같았다. 드디어 우리는 위험 천만한 상륙 장소에 도달했다. 그러자 그 교사는 남편에게 “아기를 내릴 준비를 하세요. 저 사람들이 아기를 먼저 상륙시키라고 할 거예요!”라고 소리쳤다.

그 말이 그치기가 무섭게 언덕 위에 있는 남자가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여보세요, 손님! 아기를 받아 들어요! 아기를 싼 담요와 옷을 모두 벗기세요.”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기는 흥역을 앓고 있어요. 아기 옷을 모두 벗길 수는 없어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젊은 교사가 남편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모두 벗기셔야 합니다. 아기를 해변쪽으로 던져야 하나니까요. 담요나 그 밖의 험령한 옷 때문에 사람이 아기를 놓쳐 바위 절벽으로 떨어뜨리거나 물 속에 빠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벽 위에서 다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아기 옷을 벗겨요.” 그러나 남편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아마 남편도 나만큼 두려웠던 것 같았다.

젊은 교사가 남편이 안고 있는 아기를 낚아채서 재빨리 기저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벗겼다. 들어닥치는 파도를

타고 우리가 탄 카누는 위로 치솟았으나 충분한 높이만큼 올라가지 못한 채 물결이 빠져 나가자 다시 바다쪽으로 물러났다. 또 다른 파도를 타고 다시 치솟아 올랐으나, 이번에도 충분하지 못했다.

우리가 다음 파도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순간, 나는 “아기를 던져요!”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배를 움켜 잡고 비명을 질렀다. 차마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었다. 뒤이어 “걱정 말아요, 아기는 무사하니까.”라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페잉가 자매는 감사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건너될 차례였다. 겁에 질린 나머지 페잉가 자매는 건너될 시기를 네 번이나 놓쳤다. 그러자 절벽 위에 있는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아주머니. 아기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소?” 페잉가 자매는 입으로 “오, 하나님. 주님의 은총으로 가련한 제 아기를 위해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중얼거리 듯 기도하며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뛰어내렸다.

타우콜로 랑이 형제도 아내 테말리시와 함께 하이파이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강한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여행을 한 적이 있다. 랑이 형제는 펠레메아에서 지부장으로 봉사하기 위해 선교사 기간을 연장하고, 아내와 함께 그곳에 있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활동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1958년 어느 토요일에 다섯 살 난 아들 다니엘라와 함께 팡아이에서 열린 구역 모임에 참석했던 랑이 형제는 펠레메아로 돌아가 일요일 모임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간조 시간을 이용하여 모래톱을 건너 우오레바로 건너가자, 친구인 시모네 모알라 하빌리가 해협을 건너 펠레메아로 가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만류했다. 풍랑이 심하여 바다에는 오가는 배 한 척 없었다. 그러나 랑이 형제는



빨리 펠레메아로 돌아가 일요일 예배 모임을 감리하고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8개월째 되는 아내를 만나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바다를 건너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중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타니엘라에서 시오네 모알라의 현외 장치가 달린 카누 옆에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무사히 항해할 수 있도록 간구하자고 제의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동안 커다란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와서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타니엘라를 앞자리에 앉히고는 바다로 배를 저어 갔다. 우리는 강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나는 통가에서 가장 거칠은 바다를 조그만 카누를 타고 쉽게 항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조용한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거의 물에 젖지도 않았고 카누에서 물을 퍼내는 일도 없었다. 우리가 파도를 뚫고 쉽게 해변에 도착한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질문을 퍼부어댔다. 파도가 워낙 거칠어서 3일 동안 펠레메아 해안을 떠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께서 배풀어 주신 축복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통가 성도들은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자신 뿐만 아니라 테비타 타이마니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돕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구조될 수 있었다고 간증한다.

타이마니 형제는 병든 한 여인을 15마력짜리 모터 보트에 태우고 엄청난 파도와 혹심한 폭풍을 뚫고 화아페바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다 준 경험에 관해 말한다. 파도가 배를 덮치는 바람에 연료 탱크와 거기에서 엔진으로 연결된 호스가 바다로 떨어졌으나, 타이마이는

그 사실을 몰랐다.

환자를 배에 태우고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 연료 탱크와 호스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는 출발을 했으며, 우리는 연료도 없는 엔진을 달고 거대한 파도와 싸우면서 해협을 헤쳐 나갔지만 털털거리는 소리 한 번 듣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엔진이 꺼졌더라면 배가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아니면 어딘가에 있는 암초에 부딪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것입니다.

배가 화아페바에 안전하게 닿을 내리고서야 저는 연료 탱크가 없어져서 배 후미에 부착한 작은 엔진에 연료 한 방울 공급하지 않고서 그 거친 바다를 헤쳐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일은 분명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에 어떻게 보호받게 되는가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 변화를 가져오는 신앙

통가 성도들의 신앙의 유산, 습성과 편견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더욱 더 놀라운 기적으로까지 이어진다.

루이사 파라우니 콩아이카 자매는 남편인 빌리아니는 “천성이 부드럽고 밝은 성격을 지닌 반면” 자신은 한 때 “자신의 주장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이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고집 세고 논쟁을 즐겨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이들 부부가 1946년에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콩아이카는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이 자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콩아이카 자매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습관과 화가 난 듯한 말투가 남편에 대해서는 물론 선교사업을 하는 데에도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왼쪽 끝 : 루이사 파라우니 콩아이카는 어느 날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꿈을 꾸었다. (아래 “변화를 가져 오는 신앙” 참조)

왼쪽 :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통가 성도들은 식량과 채소, 과일 등을 지금 자족한다.

오른쪽 : 1935년에 찍은 하이파이 지방부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모습.



꿈 속에서 에밀 시 던 통가 선교부장이 내게 오더니 나에게 자기 가족과 함께 주님이 직접 참석하시는 특별 대회에 참석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기꺼이 그들과 동행했다. 대회가 열리는 장소에 도착하자 마치 문처럼 생긴 크고 육중한 돌이 보였다. 그 문 뒤에 그리스도가 계시어서 우리와 차례로 개별 면담을 하시기로 되어 있었다.

내 차례가 오자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 만만하게 접견을 받기 위해 들어갔다. 그런데 구세주께서는 엄숙한 표정으로 나를 보시며, “사악한 입을 가진 여인이여, 너를 보고 싶지도 않구나. 너는 어찌하여 남편에게 그토록 정결치 못한 말을 하느냐! 네가 아무리 다른 선행을 할지라도, 네 잔소리와 남을 비웃는 행위는 옳지 못하니 나의 면전에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큰소리로 간청을 하다가 결국은 슬픔 속에 홀로 남게 되었다. 그러다 흐느껴 우는 소리에 잠이 깨서는 곧장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다. 나는 남을 못살게 굴고 논쟁을 즐겨 했으며 남편의 부드러운 성격을 이용했었으나, 이제는 그의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남편에 대한 태도를 변경시키지 않았으며, 남편을 더욱 사랑하고 더 적극적으로 내조하고 있다.

시오네 올레리 피우타우 투포우 역시 영적인 여행을 하는 데에는 육체적인 여행 이상 큰 신앙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가 “착실한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부모에 의해 교회에서 성장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방황하다가 다른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던 과정 속에서 약 46년이 지난 1984년 어느 날, 그는 마을에서 반 몰몬 영화가 상영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영화가 상영되기로 정해진 그 시각에 나는 내가 속한 동호회 사무실에 앉아서 그 영화를 보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다가 것처럼 좋은 교회가 공공연하게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상하다 못해 역겨운 생각조차 들었다.

그같이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오래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자 눈물이 억제할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 바람에 영문을 모르는 동호회 회원들은 어리둥절해 했으며,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새도록 괴로워했으며, 다음날 아침에는 더욱 괴로웠다. 나는 내 주변을 휘감고 있는 어둠 속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청하기 위해 금식하기 시작했다.

금식을 마치고 나자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나의 교회이고 또한 나의 부모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도록 권고와 격려를 해주셨다.

일요일에 나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을 향해 걸어가었다. 내가 교회를 떠날 때 형제 자매들이 슬퍼했던 것만큼 이번에는 내가 교회로 돌아간 것을 기뻐했다. 그 이후로 나는 교회 모임에 빠졌던 적이 한번도 없다. 내가 “다시 개심한” 이후로 나의 가족은 참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따금씩 나는 나를 교회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고인이 되신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끼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금식과 기도를 통해 진리에 대한 증거를 찾도록 계기를 만들어 준 그 이상한 경험에 대해 생각한다.

## 주님이 마련해 주심

통가 성도들이 지닌 신앙의 유산 가운데 또 한 가지

타우콜로 랑이는 아들 타니엘라와 함께 폭풍이 이는 바다를 건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보호를 간구하였다. 엄청난 파도가 해변을 덮쳤을 때에도,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평화와 힘을 얻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 되었든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이다.

사이아 파옹오는 1964년에 선교사로 봉사할 때, 외딴 섬인 니우아 토푸타푸에 있는 6명의 선교사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들은 가끔 다음 식사를 어디에서 구해야 할 지를 모를 때가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팔레하우에서 가가 호호를 하며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금식을 중단하려고 해도 먹을 음식이 없었다. 선교사들이 오두막 밖으로 나올 때에 파옹오 장로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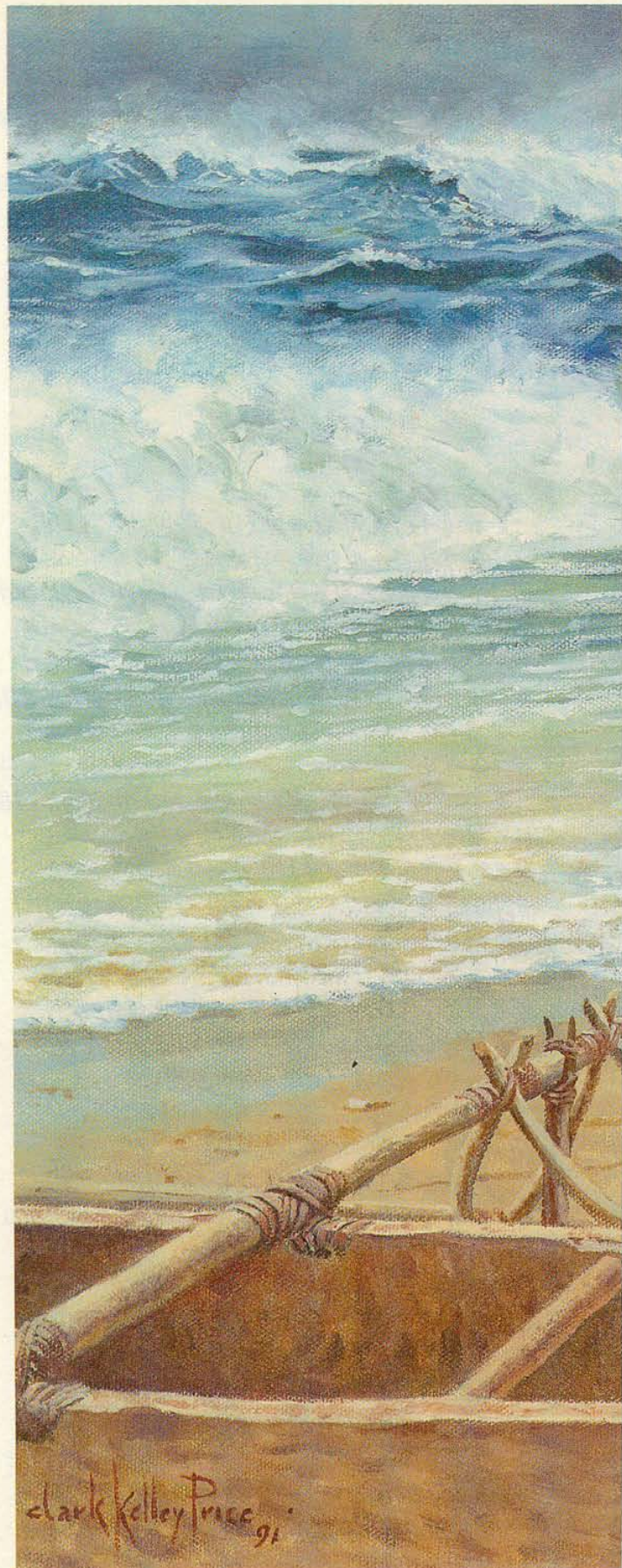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선교사들을 데리고 섬 뒷편 해변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동반자에게 고기 작살을 가져 오도록 하여 모두 함께 바위가 많은 니우아 토푸타푸 해변으로 갔다.

불운하게도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만조가 되어 바닷물이 들어와 있었다. 따라서 가져간 작살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모두 실망한채 앉아서 쉬고 있었으며, 포누아 장로만이 해변을 따라 거닐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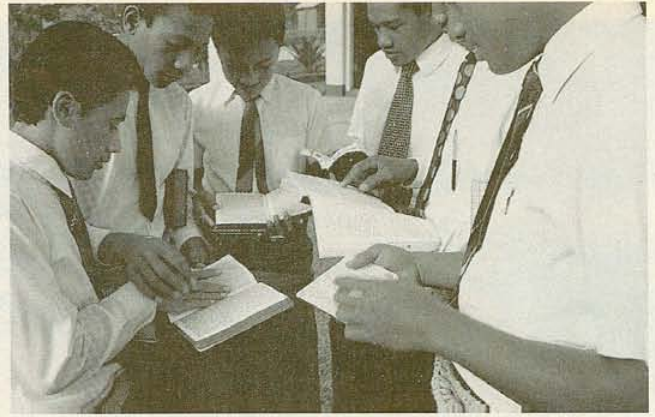
갑자기 포누아 장로가 와서 보라고 우리에게 소리쳤다. 우리가 급히 달려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놀랍게도 살쥔 큰 도미 한 마리가 해변으로 헤엄쳐 올라와 있었다. 우리는 길이가 1미터이며 두께가 30센티나 되는 그 물고기로 주린 배를 맘껏 채울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조그만 외딴 섬에서 봉사하는 굶주린 젊은 선교사들에게 그 물고기를 보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바바우 병원의 한 수술실에서는 살레시 하빌리 박사가 드린 열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졌다. 하빌리 박사와 그의 아내인 셀루 자매는 1년 전인 1977년에 교회에







들어왔으며,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술을 하는 중에 한 특별한 경험을 하였는데, 그는 이것이 그가 성전에 가기 전에 통과해야 할 신앙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에 있는 병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두 외과 의사와 마취 전문의인 하빌리 박사는 마피 바카로아라는 노인을 수술하기 시작했다. 간호원이 마피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귓속말로 하는 소리를 듣고 살펴본 하빌리 박사는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몹시 당황한 그는 잘못된 곳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다시 점검했다. 결국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확신도 없이 기도했다. 어쨌든 나는 그가 죽었다고 과학적인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주어진 여건 속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했다.

나는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기도했다. 죄책감과 그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이 내 마음속을 지배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마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 달라고 간청은 하면서도 의사로서 볼 때 그가 죽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나는 내가 그를 죽게 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두려웠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마피의 생명이 내가 드리는 기도의 진실성과 내 신앙에 달려 있으며, 이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은 내가 성전에 가기로 되어 있는 전날에 발생한 일종의 신앙에 대한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피의 심장이 멎은 지 18분이 지났다. 나는 더욱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을 살려만 주신다면 내 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이전에 드렸던 기도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열렬히 주님을 가까이 느끼며

기도했다.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는 한 가닥의 의심이라도 모두 떨쳐 버리고 내가 눈을 떠면 마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리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했다.

기적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25분 동안 멈추었던 마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나는 기쁨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의사와 간호원들에게 전날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 뒤 다른 병동을 순회하다가 마피의 침대 곁에 앉아 있는 그의 아내를 보고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제 마피는 건강하며 말도 잘한다.

## 신앙의 유산

통가에서 건축 선교사로 봉사하던 이녹 라벨 맨웨링은 1957년 일단의 건축 선교사들과 함께 예배당을 짓기 위해 우이하 섬으로 갔다. 그곳에서 바이카토라는 이투의 백 살을 족히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건축일을 도와 주겠다고 끈질기게 졸랐다. 선교사들은 그 할머니에게 무거운 벽돌을 나르거나 물통을 들고 다니지 말라고 당부했으나, 할머니는 계속해서 그들을 도우려 했다.

건축일이 점점 진행되어 가고 있을 때 통가 출신의 건축 선교사 몇 명이 맨웨링 형제에게 와서 그가 바이카토 할머니에게 건축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맨웨링 형제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놀랍게도 그들은 바이카토 할머니가 예배당의 생김새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그 할머니가 다른 모든 일꾼들에게 공과 교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연단은 어디에 설 것이며 예배당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양은 어떨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 할머니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

나는 통역자를 통해 남태평양 지역에서 건축

왼쪽 끝 : 통가의전형적인 말일성도 집회소, 왼쪽 : 복음 전파를 위한 길을 닦았던 교회의 초기 선교사들이 오늘날의 선교사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본다면 매우 기뻐할 것이다. 오른쪽 : 선교사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제이 이 기일즈(앞에 있는 사람)와 그의 네 자녀들.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20년 전에 그 할머니가 통가 군도를 여행중이던 조지 앨버트 스미스 장로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미스 장로는 축복을 하면서 바이카토 할머니가 충실히 신앙을 지킨다면 살아서 그 섬에 세워질 아름다운 예배당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카토 할머니는 축복을 받는 동안 시현을 통해 그 예배당을 모두 보았던 것이다.”

일백 년 전에 통가 땅을 밟았던 최초의 선교사들 역시 분명 그같은 시현을 보았을 것이다. 올해에 있을 10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후세에 알려지게 될 이들의 겸손한 노력이 오늘날 급속한 회원의 증가를 위한 길을 닦았던 것이다. 누크아로자에 세워진 아름다운 성전은 그러한 성장의 상징이며, 오늘날 통가 성도들의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기념비이다.

## 통가의 유산 : 기독교의 토대

오늘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통가에서 이만큼 성장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념할 때에 통가에 기독교를 소개한 사람들의 공적을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은 비록 복음의 회복에 관해서는 몰랐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웨슬리 교파 선교사들은 카우 파카멜로멜로(길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보내지는 사람)로서, 그곳 주민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번역하였으며 학교를 세우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팔랑이(백인) 개신교 선교사들은 통가 출신의 선교사들과 힘을 합쳐 일했으나, 통가인들이 그들의 주장에 대해 품고 있는 충성심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았다. 1831년에 추장 타우파아하우가 기독교로 개종하자 일대 변혁이 일어났으며, 그때부터 오랜 토착 신앙에 반대하는 활발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타우파아하우는 그의 세례명을 조지로 정했으며, 읽고

쓰는 법을 배워 웨슬리 교회에서 정식 전도사로 봉사했다. 그는 근엄한 외모와 강한 영향력을 지닌 지성인으로서, 교회내에서 큰 힘이 되었다. 1845년 온 통가를 다스리는 왕이 투이 카노쿠푸루가 되자, 그는 비 기독교적인 세력을 현저히 약화시켜 결국은 이러한 세력은 위협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웨슬리 교회는 조지 왕이 1885년 1월 4일에 통가 자유 교회를 세울 때까지 통가의 공인 국교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새로 설립된 교회는 비록 형태나 교리면에서는 여전히 웨슬리 교회의 것을 따랐으나 제반 교회 행정에 있어서는 독립적이었다. 이 분열에 따른 사회, 종교 및 정치적인 여파로 인하여 혼란과 종교적인 과민 현상 및 계속되는 적개심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일성도 선교사인 브리감 스무스 장로와 엘마 버틀러 장로는 1891년 7월 15일에 에스 와이누이호를 내려 통가에 상륙했다. 당시 평화와 조화를 갈망하고 있던 통가인들은 사회 전체가 더 큰 분열과 변화를 겪거나 또는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당시에는 종교적인 반목으로 인해 선교부가 비록 폐쇄되기는 하였으나, 말일성도들은 그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돌아올 것을 결심했다. 그들은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충만한 복음을 가져다 주었다. \*

에릭 비 섬웨이는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의 학사 담당 부총재이며, 이 기사는 그의 저서인 통가의 성도, 신앙의 유산에서 발췌되었다. 상기 저서는 통가의 교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학교 부설 폴리네시아 연구소에서 출판하였다.

# 아직도 젊다

스티븐 케이 크리스찬슨

**라** 지로 루시오 리베라 델 카르피오 마로킨은 튼튼하고 건강하며 매우 활동적인 사람으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터로 나간다.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91세의 나이에도 지칠 줄 모르는 선교사이다. 리베라 형제의 모범을 통해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리베라 형제는 1899년 12월 17일 페루의 아레퀴파에서 태어났으나, 나중에 안데스 산맥의 봉우리에 자리잡고 있는 리바에서 동남쪽으로 약 600 킬로미터 떨어진 쿠즈코시에 정착하였으며, 바로 이곳에서 선교사를 만났다. 그의 개종 이야기와 그후 끊임없이 교회에 헌신해 온 일들을 통해 페루의 초기 회원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훌륭한 업적을 잘 알 수 있다.

리베라 형제는 “요셉 스미스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세상의 모든 종파 가운데서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교회에도 속하지는 않았습니니다.”라고 말한다. 이같은 추구는 그가 67세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저는 가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아들 핵토르가 오더니 ‘아빠, 이제까지 많은 교회에 대해 공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새로운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관심없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라고 대답했더니, 핵토르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어쩌면 아빠가 찾고 계시는 교회일지도 모르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주님의 영이 아들과 함께 하셔서 저를 그리로

데려가셨나 봅니다. 저는 모자를 쓰고 핵토르와 함께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두 명의 선교사를 보고 인사를 하자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아홉 시 반인가 열 시에 모임이 시작되었으며, 저는 정오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뿌리내린 종교적인 관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참석했을 때에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두번째로 참석을 하여 특히 지혜의 말씀을 듣고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베라 형제는 24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서 건강하고 힘있는 생활을 누리고 있다.

“침례를 받은 후에 저는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기억하는한 아버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여기서는 것을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의 아버님께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며, 또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아들 핵토르는 말한다.

페루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56년이지만 1967년에 리베라 형제를 처음으로 만났던 선교사들은 쿠즈코에서 봉사한 최초의 선교사들이었으며, 리베라 형제는 이 도시의 초창기 회원 중의 한 명이였다. 리베라 형제는 선교사들과 처음 만난 이래 항상 선교 사업을 좋아해 왔으며, 선교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만 보아도 그의 열의가 대단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저는 말일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더 나은 삶을 살고 당면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의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선교사들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침례를 받도록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에 싫증을 낸 적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복음에 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리베로 형제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교 사업을 행한다. 쿠즈코에 있는 그의 가게 안에는 손님들에게 선교사들이 방문하도록 서명을 권유하는 포스터가 걸려 있으며, 또한 가족과 친구들이 교회에 들어와 간증을 갖도록 돕는다.

“사람을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같이 된 것은 행운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쿠즈코에서 리베라 형제의 생활은 구대륙과 신대륙의 독특한 혼합 양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6세기에 스페인에서 온 정복자 프란치스코 피사로와 함께 신대륙으로 건너왔던 스페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니콜라스 데 리베라 비에호의 직계 후손이다. 반면에 쿠즈코 시는 스페인 사람들이 건너오기 오래 전에 잉카 제국의 수도가 있던 곳이다.

현재 리베라 형제는 보석 세공을 하기 위해 고대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가 지닌 기술과 섬세함으로 말미암아 국내외의 유명한 영화 배우들을 비롯한 많은 고객들이 세계 각처에서 모여들고 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오지만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은 바로 쿠즈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곳에 살고 있다.

침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쿠즈코 지부의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아 회원들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도구로 쓰여졌다. 리베라 형제는 그때에 있었던 한 가지 경험을 회상한다. “당시 갓 침례받은 회원 중에 과블로 콘차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기술자였으나 직장이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려 리마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형제가 떠나기 전에 저는 그에게 ‘형제님은 리마에서 15일 동안만 계시게 될 것이며, 다시 돌아와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직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15일 만에 돌아온 콘차 형제는 리마에 있는 대학교의 지질학 교수와 정부에서 운영하는 토지 및 광산 권리 사무소장이라는 두 가지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리베라 형제는 주님이 그에게 하실 말씀을 제시해 주신다고 믿고 있다. “주님은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회원들이 전하도록 하십니다.”

헥토르 리베라는 그의 부친의 신앙은 항상 영감에 찬 것이었다고 말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아버님은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하실 것입니다. 아버님은 교회에 들어오신 이후로 항상 주어진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셨습니다.” 대제사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리베라 형제는 현재 스테이크 가족 역사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다.

리베라 형제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경전에 대한 애착심이다. 경전은 지혜의 말씀과 더불어 리베라 형제의 생활에 활력과 원동력을 더해 주는 근원이 되고 있다. “저는 매일 경전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경전을 읽어 왔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전을 공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 자신을 감쌀 것입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헥토르는 그의 부친이 경전을 꾸준히 읽는 것을 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버님께서는 물론경이나 교회 잡지 및 기타 교회 서적을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잡자리에 들 때에도 아버님께서도 역시 교회 서적을 읽고 계십니다. 아버님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버님이 경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저도 물론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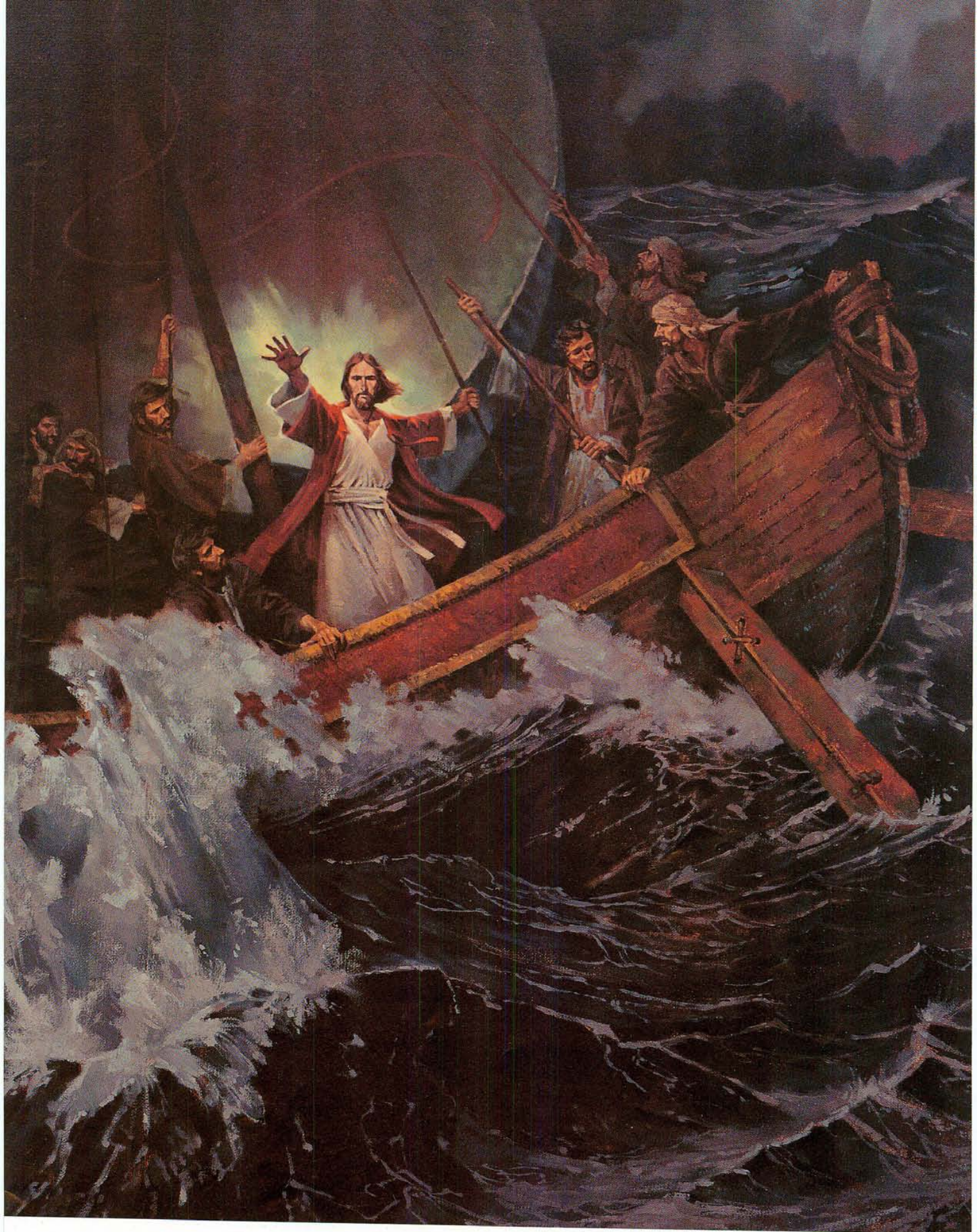
경전은 리베라 형제가 외적으로 활동적인 것만큼 내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실제로 그가 좋아하는 성구 중의 하나도 “젊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엘마서 37:35)라는 구절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리베라 형제는 비록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장수하는 것을 부러워하지만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면서 리베라 형제가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 모습입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



“폭풍을 잔잔케 하심”, 테드 헤닝거 작



이

들 말일성도 통가인 선교사들은 그들의  
고향인 섬에서 일백년에 걸친 선교  
사업의 토대를 굳게 세우고 있다. “통가  
섬의 성도들 : 신앙의 유산”, 36쪽